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編輯兼發行人 印刷人
新定價 壹個月八拾錢 壹個年九圓五拾錢
廣告料 五號活字 壹行 金壹圓

副業共進會와 警戒
當局의 過敏한 態度

京城에 開催케 되는 副業共進會도 이제 期日이 切迫케 되얏다 一時 停止의 說이 巷間에 盛行하든 바러니 當初의 豫定과 如히 斯會가 進捗된 것은 무엇보다도 可賀할 일이다 다만 東京震災의 餘波로 全朝鮮內의 人氣가 多少 弛緩케 된 것은 감추지 못할 事實이어니와 徒히 體面論에 拘泥하야 該會의 初旨를 沒却케 할 必要는 조금도 업슬 것이다 卽 東京震災와 副業共進會와는 全然 別個物이다 一支體의 故障으로 全有機體의 機能을 停止케 하는 原則은 成立치 못한다 吾人은 이 點에 잇서 朝鮮産業의 發達을 阻害한 副業共進會의 開催를 阻止할 理由는 업다 한다 어듸까지든지 本來의 趣旨를 遂行치 안할 수 업다 勿論 副業共進會 自體가 朝鮮産業 發達에 얼마나한 實效가 잇슬지 업슬지는 論外이다 旣히 朝鮮産業 發達의 前提下에 計劃한 本來의 趣旨면 吾人의 取할 바 要點이다 그러고 이 會의 初旨를 어듸까지든지 協助하야 朝鮮産業의 發達에 萬一의 一助라도 된다면 吾人은 雙手를 擧하야 賀할 바이로다

副業共進會의 計劃을 發表한 當初부터 當局者의 聲明이 너무나 誇大에 失한 것을 吾人은 一言하얏다 朝鮮産業政策의 根幹이 얼마나 貧弱하며 또 모든 施設의 支離滅裂한 現狀에 處하야 다만 一副業共進會의 開催가 곳 産業增殖策의 全體요 또 唯一한 金科玉條와 가치 宣傳的 口吻을 不憚한 當局者의 腹力은 누구나 失笑喫驚을 禁치 못하얏슬 것이다 卽 우리는 보다 더 徹底한 또 廣汎한 根本的 産業政策이 무엇인가를 要望한 것은 好意의 警告에 不過하얏든 것이다 勿論 副業이 必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더욱 貧弱한 朝鮮農家의 振興策으로는 緊要한 것의 一이다 그러나 副業의 振興 그것만으로는 朝鮮農家의 疲弊를 救濟하기에 너무나 微力한 것을 如何할 것인가 卽 根本的으로 考慮할 餘地가 多々하며 또 一大의 施術을 加치 안하면 그 固疾의 病이 將次 生命의 倒斃에 至하고 말 것을 憂慮함이 엇지 吾人 一片의 杞憂에만 止하랴 우리는 이 意味에 잇서 朝鮮農村의 根本的 振興策을 當局에 要望하는 것이다 況且 全般의 産業 卽 모든 方面의 殖産工商業의 方面에 얼마나 注力을 加하는지 姑息的 彌縫이 아닌 徹底한 振興策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懇切히 듯고자 한다

副業奬勵의 方便가지고 論하여도 다만 一時的 共進會의 開催로 그 目的을 達할 바가 아니다 도로혀 共進會보다도 根本問題 卽 指導가 必要하다 萬一 一時의 共進會 開催로 奬勵의 實效를 擧하려 한 것은 此所謂 緣木求魚의 類라 다만 農家의 貧窮만 散財케 할 뿐인 意外의 結果를 致할 것이다 陳列品 蒐集에 얼마나한 印象과 衝擊과 또 殺傷을 得할가 함은 一種의 疑問이다 農民은 技術者도 아니오 또 企業的 感受性이 銳敏치도 못한 朴撲古異의 純人이다 이러한 純人에 纖細한 技術을 敎하려 함은 近代人의 速成癖과 長久한 忍耐의 和合을 要할 것이다 當局者의 所見도 이러하리라 되도록 徹底한 奬勵와 또 親切丁寧의 直接指導를 要할 것이다 指導策을 別로히 考案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맛을 뿐이다

또 最後의 苦言으로 當局者의게 一言을 呈한다 今番의 共進會를 平和의 裡에 開하고 平和의 裡에 閉了하기를 徒히 風聲鶴唳의 過敏한 態度로 一般人心을 迷惑케 하는 것은 當局者를 爲하야 取치 안는 바이다 무슨 外的으로 大々的 警戒를 威張하야 全朝鮮의 人心을 萎縮케 할 必要가 有한가 地方人士의 集中으로 治安維持에 萬一의 慮가 有하얏슬진대 當初에 此를 計劃함은 엇더한 自信에 依함이엿든가 震災의 影響을 云々하는가 震災는 震災요 朝鮮은 朝鮮일진대 여기에 엇더한 因果의 關係가 有한가 바라건대 悠々自適의 雅量을 把持하야 朝鮮人의 情緒를 正視할지어다 共進會의 主體보다도 赤帽佩劍의 氣勢이 顯强한 巷間의 風說에 對하야 特히 當局者의 冷靜한 考察을 促할 뿐이다

社會內面的生活考察 (一)
在東京 金商圭(寄)

一、社會의 槪觀
(一) 社 會

社會라는 것은 무엇인가 勿論 이것을 社會學上의 見地로서 觀察코저 아니할진대 歷史의 起原에 遡及하야 釋明할 意志가 업는 것은 分明합니다 過去 歷史가 如何하든 또는 所謂 斯界의 學者의 解說이 如何하든 假令 部分的 參考의 資料로 하는 것은 偏見과 獨斷을 防止하는 데 必要하려니와 조곰 그에 拘泥치 안코 現實 그를 건에 多少 常識的 見解를 加味하야 假令 그의 實際的의 正體를 察驗할 수는 淺學의 此見의 能히 할 바 아니라 할지라도 대강 그의 槪念을 作間 皮相的으로 解說코저 하는 意味인 줄을 미리 告하야 두는 必要가 잇슬 것 가치 생각합니다

普通 社會라고 하면 或은 一家族 又는 學校와 如한 小規模의 團體生活을 指稱한 수도 잇고 或은 人類世界 全體를 指稱하야 社會라 하는 수도 잇습니다 이와 가치 社會라는 그 文字의 使用하는 法이 至極히 複雜하야 所謂 斯界의 學者 間에도 人々에 딸아서 用法의 相違가 有하니 例를 言하면 어느 社會學者는 家族이라든지 國家라든지를 除外하고 社會라는 文字를 使用한 學者가 有합니다 그런 량으로 그 使用法을 보면 社會라는 것은 或은 門閥로서 組織된 貴族이며 或은 職業으로서 組織된 人民의 階級 卽 知識階級이라든가 勞働階級이라든가 有産階級이라든가 無産階級이라든가 더욱 敎義에 가서는 職業中에서라도 工業界며 商業界 農業界며 이와 가치 다만 階級的으로만 되엿을 外에 職業別 階級에 까지 突及하야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34)
廉想涉
(상편) 三ㅣ九

명수는 마리아의 하얀 얼굴을 한참 바라다보며 옷둑섯다가
『자々 가지요 참 괴숙사 시간이 느질 길엘요』하며 한발 자국 떼여 노앗다 마리아도 변소로 향하고 발을 떼어 노앗다 커편 장독대에 비초이는 볕빗이 어스름하게 줄이 오는 구석방 뒤스모통이에서 회고검은 두 그림자가 서로 얼크려젓다가 반간통이나 떠러진 뒤에 마리아는 살작 돌려다보앗다 명수도 돌려다 보앗다 명수의 코에는 향긋한 녀자의 살냄새와 머리 내가 코끗에 남아잇는 것가타 낫다 명수는 유쾌한 듯이 혼자 생긋 우스며 마루로 올라섯다

부산히 치우는 소리에 조흘던 상으로 드러오는 덕순이가 명수의 화식이 도는 얼굴을 뚝바로 뜬 눈으로 잠간 처다보고 우스며 지나갓다 마리아가 명수의 뒤를 또 든 덕순이는 명수의 얼굴에서 무엇을 차저내이랴는 모양이나 명수도 덕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엇연가 미연가 하면서도 그것이 명수에게는 반갑지 각되지는 안엇다

상글다! 치인 뒤에 마루방에서 쉬리~ 모혀 안저서 잠간씩 어득 혀드면서 다가 역시 마리아를 장을 스는 바람에 나도~ 하며 따라나섯다 와자지걸 하며 뜰로 나려서서 명수가 집구경 한다고 이리저리 도라 단이는 동안에 덕순이는 역시 『마리아』를 한 목금 식혀서 쉐게 집 애들에게 쥐어주엇다

『나는 아니 주유?』
겨러 섯든 명수가 우스며 실업시 한마듸 하니까
『그것두 주는 사람이 잇서야나 다 주나』하며 덕순이는 커다란 쌔빨간 한송이를 꺽거들고 나와서
『… 하지만 라선생은 복 한지만요』하고 쌀쌀스러우며 명수의 양복 커고리 깃에 꼬자 주엇다 명수는 꼬자 주는 대로 가만히 섯다가 고개를 숙이고 외인편 깃에 꼬친 손바닥 만한 검붉은 쏫을 드려다보며 우섯다 여럿 사람들도 따라 우섯다 인사를 하랴 나와서 마루 끗에 혼자 가만히 섯든 주인 령감은 호젓한 듯이 혼자 가만히 뜰아래를 내려다보고 섯々다 덕순이는 명수 뒤에 방글~ 웃고 섯는 한규를 잠간 처다보더니
『아 참 저 서방님두……』하며 다시 쏫밧흐로 휘젓고 드러가서 또 두송이를 꺽거가지고 나오더니 한규의 허생양복 커고리의 돌재단 초人구멍에 한송이를 끼어주고 다른 한송이를 들고 우스며
『김선생두 솜만은 못해두 쏫은 조화하시겟지?』하며 중환이에게로 뎀벼드럿다 중환이는 우스며 잠잣고 섯다가 쏘쥐주라는 쏫을 손에 바다들더니 웅화는 여긴히 별로 옷지도 안코 마루우에 서 나려다 보고 섯고 홍진이는 아까부터 건넌방 엽헤 추녀 우에 서서 우스며 바라보고 잇다
『선생님만 쏫을 안드렷군!』하며 덕옥이가 홍진이를 처어다보니까 홍진이도 쌀아 우스며
『자ㅣ 어서 갑시다』하고 압장을 섯다

한규는 경애가 활이야기가 잇다고 속살거리는 바로 붓들려 잇고 남아지 일행은 감영압으로 나왓다 희숙이도 어서 집으로 가보아야 하겟다고 차에 뛰어 올라가서 남대문편으로 혼자 가버린 뒤에 헤어지거라는 홍진이를 명수와 중환이가 붓드러 가지고 새문안으로 드러섯다 느진 여름의 밤은 놉히 올려간 엷은 구름을 미러서 종용히 잠이 들어가고 면등불이 환하게 쏘다 가나오는 가게압헤는 평상들을 내어 노코 안젓는 동커고리 시바람의 젊은 남자들이 몰켜 안저서 밤가는 줄을 모르고 떠들고 잇는 것이 힘큰~ 눈에 띄인다

『조ㅣ타! 그 쏫! 되엿는데 그 만하면!』『ㅣ 밑보름……』
납작한 단배가 게 압헤 양에다 버려 노코 그 엽헤 참외를 스고한 첨은 석주가 스집 외입장이들이 이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갓 흥신 여러 진 뒤에 이런 소리를 하얏다 『마리아』한송이를 오른손에 들고 손가락 사이로 빙々 돌리며 뒤쪼차 가든 중환이가 휘돌아 서서 마며 것 발자곡 우중々 걸어오더니 우스며
『이 걸 드리릿가?』하며 쏫을 내 미럿다
『그건 웨 날 주산 대우?』
붓채를 들고 풀머 넘음한 절믄 사람이 셧다가 눈을 뚝바로 뜨며 중환이를 치어다보앗다
『아 노형 비틀이 조타고 하지 안엇소』
『아 그럴 게 안일셰』하며 그 뒤에 안젓든 다른 절믄자가 이려나며 시비를 하랴 든 자를 말리고 나서
『고맙습니다!』하고 중환이가 내 밀고 섯든 쏫을 바다 들고
『안령히 갑쇼』하고 지속에 차려 노흔 빙수파는 더 권으로 드러가 버렷다
『쏫 스런 놈두 다 보겟군!』하는 소리를 뒤에 두고 중환이는 속으로 우스며 돌쳐 섯다

四海閃光 千里駒
聽力試驗

耳垢는 天然의 作用으로 耳內細毛에서 腺이 出하야 鼓膜에 入치 못하도록 防過하나 그러나 普通 吾人 理髮所에서 理髮師의 게 耳를 掃除하니 此는 甚히 危險한 事이라 한다 萬若 耳聾이 太多한 時에는 專門醫를 訪問할 것이다 耳疾症이 甚하지 아니면 等閑히 思함은 吾人의 缺點이다 그럼으로 聽力을 間々 試驗하야서 將來의 安全을 圖할지니 普通人은 會話를 二十三碼 距離에서 中明히 聞하고 時票 針聲을 室內에서 五尺 距離에 聞한다 萬若 時針聲을 三尺 距離에서 聞치 못하면 聽力이 不完全한 것이니 專門醫를 訪問할 것이다

九月廿九日前場 (納會强硬)

今朝 大阪은 [illegible] 共히 快晴에 各地 [illegible] 강한 것으로 개시하야더라 一先은 四十錢[illegible] 十九錢이라 當地亦前場止值보다 三十二錢은 [illegible] 二十二錢이 [illegible] 二十三圓〇九錢에 [illegible] 一錢說 外 자 有하더니 〇五錢으로 [illegible] 場을 止한 後 氣 [illegible] 弱하얏고 [illegible] 寄趺에서 相交하며 〇三錢 [illegible] 一派의 活動은 猛烈함을 따라 氣勢 [illegible] 하더니 昨止보다 十六丁 低하 一圓 [illegible] 도 割下 二十二圓八十九 錢에 初付하다

[illegible] 一派의 [illegible] 十七錢 外지 反하야 十錢 [illegible] 에 混戰하다가 十二錢으로 止하다
▲第三節 當中은 前節과 如하고 低로 奔出의 步調로 二十七錢 外지 [illegible] 七節이 六十八錢이라 當地 硬派의 活州이 優勢되나 始値 十四錢을 最 [illegible] 高值로 十六錢이 低値되야 更히 [illegible] 餘止하다
▲第六節 當中은 如前하고 先限은 彼此 觀望中 二十錢에 始하야 此

高値	二十三圓三十錢
低値	二十二圓八十九錢
一節 公定價格	二十二圓八十九錢

當限	一
中限	一
先限	二十三圓十三錢

五節	二七五五
六節	二七六二
七節	二七六八
八節	二七六九

附子理中湯 特劑 上劑 / 肥兒湯 十貼 / 水土湯 廿貼 / 六味丸 特劑 上劑 / 補中益氣湯 / 雙和湯 / 倍四物湯 / 八味湯 / 六味湯 / 十全大補湯
○時期服藥時期 苦待하시든 好時期 乘하야 開業三週年紀念을 當하온 本商會는 諸賢의 健康을 圖하와 精鮮하온 唐草藥材를 多數貿入하와 諸般 大家에 供献하와 本商會開業三週年紀念으로 中秋를 當하야 … 藥은 材料를 擇지 아니하면 效力이 無함니다
京城府授恩洞三十二番地 藥種 藥材直輸入 貿易 朝鮮商會 振替口座京城一〇三八六番

新琥珀 라이오 아보
미라 各種卷煙草와 各種煙物及原料 (都賣散賣)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海市商會支店 電話本局二五〇八番 振替京城四八番

帽子는 스다
都賣 散賣 極力싸게 地方代金引換은 親切第一
京城南大門市場入口 合名會社 スター商會

◉金屬板又는 美麗한 木板에 光彩燦爛한 白鐵文字 押込
姓名門牌
募集 銅及眞鍮張板付金 一圓五十錢也 洋漆極上木板付金六十五錢也 郵送料金四十錢 實費 美麗木板 注文은 先金을 要함 註文者는 返信料 添付 規則書請求하시오
平壤府鍾路 主 尹經 西都商屋 振替口座京城四九四六番

(野球庭球用具特別割引)
各種運動具及冬用運動服新荷着
三光堂 京城堅志洞三一 振替京城二二四二

副業共進會開催中은 五圓以上購買하시는 人士에게 紀念으로 特別히 粗品을 進呈함
時計各種 眼鏡各種 指環各種 貴金屬品 諸般修繕
普信堂時計舖 京城鍾路二丁目六番地 主 玄錫柱 電話光化門八八三 振替京城二八五一

震災地朝鮮學生安否調查
東京方面今次의 震災地學校에 在學하는 朝鮮學生徒의 安否는 極力調查하야 其判明한 者에 對하야는 直히 通報하야오는 바이나 今尚 消息이 不明한 者 特히 調查希望하는 者는 住所 學校名 氏名 年齡을 東京市麴町區中六番町四十九番地 東洋協會朝鮮學生督學部에 申出함을 要함
朝鮮總督府

謹告
敬啓 本所의 大同譜 收單은 大正十一年三月以前에 有司若干名을 任命하야 收單事務를 執行하얏스나 … 入의 兩丁及 約定金 年賦金及其他 金錢 收入은 一切 本所로 直接 送交하시고 … 京城府 嶼 洞 … 全州李氏大同宗約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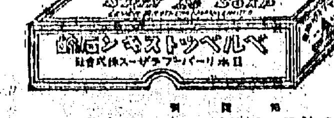
理髮器具大廉賣
當社販賣品은 切髮確實保證함 信用絶大 他店과 比較한 後 安心하야 注文하시오
バリカン 片手 兩手 一厘 五厘 刈 各同價
安全面刀 넛게루箱入 逸獨製
西洋面刀 舶來品
日本面刀 (送廿錢)
四十錢、七十錢、八十錢、一圓各種 特等品也
京城本町二丁目 振替京城二二三 우쓰보야貿易部 電話本局二五七

腎氣虛弱한 諸位에 渴望하든 神秘的 奇藥이 出來?
補腎滋陽强壯 振陽源
●健康保持에 一大秘訣
●主治效能
藥價 二十日分 一劑金拾圓 特製 四十五日分 一劑貳拾圓
京城府蔣松洞 本舖 滿鮮寶藥商會 振京城四九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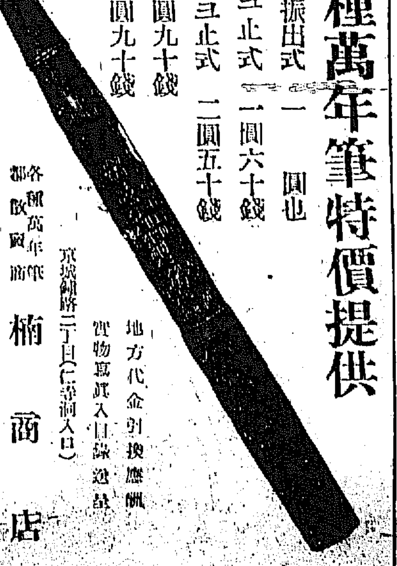
◉空前의 奇書! 新刊出來!
東京精神研究會朝鮮支部 編纂
◇心理學的! 靈妙學術!
實地應用 催眠術獨習
◇應用範圍! 自由自在!
=全一冊=特價金一圓=送料十錢=
本書의 著者 林弘基先生은 朝鮮催眠學界의 先驅로 … 依하야 斯學의 要諦를 … 會得하시오
◎發賣所 京城鍾路一丁目七五番地 新舊書籍 都賣散賣 (業) 東洋大學堂 振替口座京城壹貳〇貳壹番

질링 斷根保證
嶄新한 門外學理와 愼重한 實驗의 一致點에서 完成한 本劑는 服用後 三十分이면 化學變化에 依하야 强烈한 殺菌力을 發하야 奏效如神하오니 須히 本劑 一劑를 試用하야 보시옵
(主治) 男女淋疾、五淋、膀胱炎
輕症 十日分 壹圓 慢性 十日分 貳圓
責任保證
京城府仁寺洞七五 朝鮮婦人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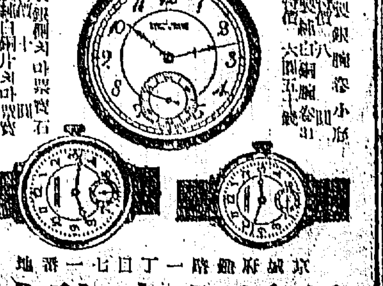
LEVER
皮膚美化하는 베루벳또
ベルベット石鹼 (香 ?)
베루벳또石鹼을 쓰는 女子가 使用한 後부터 皮膚는 柔하고 色은 희게 되야 斑點과 汚穢가 全혀 업서젓슴니다
베루벳또石鹼은 婦人의 纖弱한 皮膚를 美化하고 더욱 그 優雅한 芳香은 人格에 氣品을 增하야 風彩를 助하니다
(見本進呈) 近處의 化粧品店에 베루벳또石鹼의 請求 … 姓名 及 番地 … 住所 … 朝鮮總代理店 …
日本리-바-브라더-스 株式會社 K.V.2



各種萬年筆特價提供
세-라-振出式 一圓也
安全잉크止式 一圓六十錢
最新型잉크止式 二圓五十錢
繰出式 二圓九十錢
押出式 二圓九十錢
地方代金引換應需 實物寫眞入目錄 進呈
京城鍾路二丁目(仁寺洞入口) 各種萬年筆 都散賣商 楠商店 振替京城一三〇〇番 電話光化門三九六番



秋季大賣出
瑞西時計界의 權威
時間의 正確함은 世界의 定評이 有하야 品質優秀 價格低廉
瑞西 銀腕 夢 小形
瑞西 特製 銀 腕 八圓五十錢
瑞西 特製 入 十 石 …
信鍾堂時計舖 京城府鍾路一丁目七一番地 電話光化門八九六番 振替京城一一八九二番



獨抵抗停止命令

獨逸政府는 直報로써「루울」地方의 모든 消極的 抵抗命令을 廢止하는 旨를 公表하엿더라(伯林二十七日發)

巴威形勢稍危機

伯林來電에 依하면 巴威의 反抗的 形勢에 鑑하야 大統領은 國防大臣「겟슬르」氏에게 國內 鎭定의 全權을 委任하고 且 出版 集會의 自由를 制限하야 進犯者는 嚴罰에 處할 命令을 發하얏더라(倫敦廿七日發)

囚人陰謀의 發覺 全市中의 不安狀態

伯林報道를 據하건대 獨逸國內는 巴威監獄의 陰謀를 發覺한 後 全市는 不安에 陷한 中이며 政府는 其危險狀態를 一部 制限하야 發表하고 同時에 宣傳에 對하야 嚴重한 行政上 取締를 附與할 事를 宣言하얏고 又 新聞紙, 雜誌 等에 對하야도 記事의 揭載는 其自由를 限定하엿더라(倫敦二十七日發)

英佛親善을 聲明 英首相볼드윈氏의 說明

英國首相「볼드윈」氏는 其演說에 佛國首相「포앙카레」氏와의 會見의 結果는 更히 英佛親善의 加味한 것이라 聲明하고 更히 兩國의 親善은 現在의 歐洲政局을 安定케 함에 重大한 效果가 有하다 附言하얏더라(倫敦廿七日發)

大土匪軍又襲來 人質로 婦人宣敎師兩人을 拉去

二十三日 河南省 西花縣(鄭州東南約六十哩의 地點)에 突然 七八千名으로 成한 土匪軍이 襲來하야 市民을 脅迫하고 銀數萬元을 强要하얏스나 毫히 不應하얏슴으로 婦人宣敎師「다윗시」와「시알」兩人을 人質로 拉去하얏는대 此等 土匪軍은 山東方面에서 來한 듯하다더라(漢口二十七日發)

海軍總長辭任

海軍總長 李鼎新氏는 部員의 總辭職宣言에 憤慨하야 辭表를 提出하얏더라(北京二十八日發)

直派借款計畫 議員買收費

直隷派頭目 曹錕氏는 大選擧費用 捻出을 爲코저 曹四興 吳毓麟 等의 計劃으로 靑島의 官有財産 全部(價格一千〇四十九萬圓)를 抵當으로 하고 東洋拓殖會社로부터 秘密히 五百萬圓을 借入하기로 計劃 中이라 傳함으로 山東省議會는 早速 會議를 開하고 激烈한 反對運動을 起하고 靑島港政局 山東 有力者 連名으로 各省 省議會에 檄文을 飛하얏다더라(靑島廿七日發)

안도노푸氏의 日本現狀 露骨論評

쏘베트 난「로」號事件의 結果이라 하야 喜悅하던 바 甘粕大尉事件 及 〇〇〇〇事件 等이 路透電報로 詳報되매 大히 意外로 思하야 露紙에 論評이 出하얏는데 左와 如하다더라(哈爾賓電)

橫濱震災地를 脫出하야 哈爾賓을 經하야 海參威에 온「안도노푸」氏는 這間 海參威에서 數回의 大講演會를 開하고 日本에 關한 觀察을 發表하얏는대 特히 露國에 向하야 告白하얏는데 彼는 日本에 在한 貴族과 大資業家의 勞働者 及 農民의 革命的 傾向이 漸次 增大하야지는 것을 最히 具體的으로 陳述하고 最後에「칸」島, 比派의 橫暴를 陳述하고 武藤山治 等 一派의 實業同志會 等에도 言及하야 律賓方面의 無線電信이 日貨市勢를 下落케 할 目的으로써 發電한 各種의 虛報는 勿論 信할 바 아니나 如何間 日本은 目下 英米資本家의 掌中에 在한 것은 事實이라 早速히 此 羈絆을 脫出하야 露國을 提携코저 하는 中이던 바 今回의 震災는 再次 日本으로 하야곰 英米의 資本에 屈服지 아니치 못하게 함에 至한지라 然而 日本은 英米의 壓迫에 加하야 露中 兩國을 敵으로 하는 苦痛에 不堪하야 親露親中의 政策을 取하는 外에 他道가 無하다는 意味로 日本을 斷評하얏더라(哈爾賓電)

吳景濂氏 會議中被狙擊

北京衆議院議長 吳景濂氏는 曹錕部下로써 議員買收에 奔走中이든 바 數日前 會議 當場에 爆彈이 드러왓스나 雇用하든 中國 老婦 一名이 負傷할 뿐이오 幸히 本人은 無事하얏다 하며 警務廳에서는 二千圓의 懸賞을 附하야 犯人 逮捕를 布告하얏다더라(北京二十七日發)

露紙의 毒筆 甘粕事件의 反響

左黨系露紙는 福田大將의 交迭로

臨時議會開會 決定

臨時議會 召集에 關하야는 十月初旬에 召集하야 十一月十六日부터 開會키로 政府는 大體 決定한 模樣이더라(東京電)

戒嚴令撤廢善後策 警察力完全을 希望

戒嚴令 撤廢에 對하야 陸軍側은 速히 警察의 完全을 計하고 交通通信의 復舊를 期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撤廢期에 至하기를 希望하는 대 特히 交通의 復舊業務에 關하야는 너무 오래동안 陸軍이 干與하면 諸官廳은 此에 依賴하는 弊害를 生하야 一方 失業者의 職業을 奪하는 狀態에 陷하야 陸軍工兵隊는 爾後 專히 破壞工事의 重要任務에 當하고 其他 諸作用은 內務側의 手에 一任하게 되겟다는 事이다 又 警察力의 完全을 要望하는 바는 陸軍側의 內務側에 對하야 最히 要望하는 바이나 桑港의 震災에 鑑할지라도 戒嚴令이 一度 撤廢됨에 掠奪行爲가 盛行된 事에 徵할지라도 明白한 事인대 特히 未久에 冬期와 支那季節이 來함으로 再次 人心을 昂奮케 하야 不法行爲가 頻出치 아니할는지도 憂慮됨으로 此로 憂

戒嚴費 二百餘萬圓

陸軍省發表 震災後 治安維持를 爲하야 戒嚴令 一部 執行에 伴하야 九月二十五日까지 陸軍의 消費한 關東戒嚴費는 約 二百十餘萬圓인대 其內譯은 左와 如하더라

(單位千圓)

軍隊招致旅費	四〇〇,〇〇〇
人馬糧秣費	一,〇〇〇,〇〇〇
外소린	一〇〇,〇〇〇
軍需品運搬費	一五〇,〇〇〇
傭人諸給料及患者에 要한 費用等	三三〇,〇〇〇

右의 中에 人馬의 糧秣은 戒嚴을 布치 안을지라도 必要하는 者이나 大部分은 經常豫算에 不足額을 生케 한 것이다 尤히 今回의 戒嚴에는 陸軍戰時給與規則을 適用하야 人馬의 糧秣은 野戰定量을 基準으로 하야 現品을 給하는 中이오 又 軍隊 以外의 者에 食糧을 給할 必要와 通信設備와 建築物의 修理 爆破 又는 徹夜作業에 從事한 勞働者에 增給의 必要도 有하고 又 戰時의 救助에 出할 時에는 增俸을 給하야도 되나 一般市民이 罹災의 危에 遭하야 困難을 當하는 狀態에 鑑하야 今此를 給與할는지 猶豫하는 中이오 不然則 前記 經費도 不足한 것이 無하고 俸給 及 被服費 等은 勿論 兵器 其他 一切을 平時와 如히 支給하얏더라(東京電)

日銀態度를 說明 各行努力을 希望

市來日銀總裁는 東京組合銀行員 集會席上에서 左와 如히 日銀의 態度를 說明하얏더라(東京電)

政府는 今日의 災害를 救濟키 爲하야 英斷으로써 日銀의 手形에 對한 損失에 關하야 一億圓을 補助키로 되엿슨즉 此는 吾人 金融業者도 大히 意를 强固케 하는 것이라 吾日銀에서는 徹底的으로 門戶를 開放하야 手形의 再割引에 對하야 貸出에 應할 方針이니 各 當業者도 隔意가 無히 今後 割引을 要求할 것이라 思하고 同時에 各 銀行業者는 大히 政府의 意가 有한 바와 日銀의 態度를 諒解하야 犧牲的 精神으로써 今日의 災害 復舊에 努力하기를 希望하노라(東京電)

日銀保證勅令은 違憲이라는 意見

日銀保證의 勅令 發布에 際하야 政府는 樞密院에 對하야 此際에 議會를 召集할 必要는 無하나 右 勅令에 贊成을 求하얏는대 樞密院 內에서는 憲法 七十條의 規定으로 (議會를 召集키 不能한 境遇)로써 財政上의 緊急勅令을 發布하는 것은 違憲이라는 意見이 有하야 來議會에는 相當히 憲法論이 議되리라더라(東京電)

猶豫令撤廢對策 藏相對各行說明

大藏省에서는 二十七日 午後 七時 藏相官邸에 市來 木村 日銀正副總裁, 兒玉 金 小野 興銀 梶原 勸銀, 美濃部 鮮銀, 中川 臺銀, 水越 北銀의 各頭取 及 東京組合銀行의 諸氏를 招待하야 支拂猶豫令 撤廢後의 對策 及 恒久救濟에 關하야 井上藏相의 說明이 有하얏더라(東京電)

善後三件議決

大震災善後會는 二十八日 午後 一時부터 委員總會를 開하고 左記 三案을 議決하얏더라(東京電)

一, 公設貸屋設定의 件
一, 罹災地에 差出한 寄附金 中 百萬圓 支出의 件
一, 小學校의 復舊와 住宅設備 及 避難民取扱에 關한 件

復興院事務所 大略決定

復興院事務所는 丸內 三菱本館 及 永田町 村井氏邸 二個所로 設置하리라더라(東京電)

閣議協議內容

二十九日 閣議에서는 帝都復興計畫 大體案의 協議 及 復興에 要할 豫算 經費 捻出 方法에 就하야 協議를 遂하엿는대 右 財源은 外債를 募集할는지 愛國公債의 形式下에 內債를 募集할는지 重大問題임으로 共히 復興計畫의 豫算額 如何에 依하야 決定할 것이오 政府는 大體의 意嚮을 定하야 帝都復興評議會에 諮問한 後 確定하기로 協議를 遂하얏더라(東京電)

北海道長官 土岐大阪府知事 後任

決定의 行動을 開始할터인 바 爲先 高松宮邸에 基本病院을 建設할 豫定이라더라(東京電)

宮尾 北海道長官의 復興院 副總裁로 就任한 結果 土岐 大阪府知事는 北海道長官으로 就任키로 決定되얏더라(東京電)

外交官異動說

最近 駐獨大使 日置益氏는 歸朝하기로 決定하얏슴으로 其後任에는 前 駐中公使 小幡酉吉氏가 任命될 모양이며 北京 公使館 參事官 吉田伊三郞氏는「칠니」公使로 又 伯剌西爾公使 堀口九萬一氏는 羅馬尼亞公使로 各各 任命될터이며 現 羅馬尼亞公使 西源四郞氏는 歸朝를 命하기로 하얏다더라(東京電)

羅災地 免減稅案 法律案으로 提出

震災地에 在한 罹災者 租稅 減免 猶豫에 關한 勅令案은 二十七日 大藏省議에서 決定하얏는대 其結果 東京, 神奈川 兩縣下는 殆히 全部, 千葉, 埼玉, 靜岡 三縣의 大半은 第三種 所得稅 及 營業稅의 減免으로 約 八千萬圓의 減少는 未免이며 此에 其他 租稅 猶豫를 合하면 相當 多額에 達할지며 更히 明年度에 在한 震災 復興事業 如何에 依하야 更히 多少 減免 猶豫의 必要가 有할 것으로 大藏省은 引續 調査를 遂하야 來 四十四 議會에 法律案으로 提出할터이라더라(東京電)

東京各校 開講期決定

滯東中인 高橋 視學官으로부터 東京의 專門程度 以上 學校 授業 開始 時期에 關하야 二十八日 左와 如히 決定된 旨의 電報가 有하얏더라

▲帝國大學 十一月一日 ▲商科大學 十二月初旬 ▲第一高等學校 十月十五日 ▲高等師範學校 十月十五日 ▲女子高等師範學校 十月初旬 ▲高等工藝學校 十月十五日 ▲高等工業學校 十一月一日 ▲東京高等學校 十一月一日 ▲外國語學校 十月中旬頃 ▲美術學校 音樂學校 十一月一日(以上 直轄學校) ▲早稻田大學 十月八日 ▲明治大學 十月十五日 ▲慶應大學 十月八日 ▲中央大學 十一月一日 ▲法政大學 九月二十五日 ▲專修大學 十一月初旬 ▲立敎大學 十一月十五日 ▲日本女子大學 十月中旬(以上 私立大學) 其他 專門學校는 十月中旬부터 始業하고 中等程度 以下 學校는 大體 十月初外지에는 開校할 豫定이더라

暴利處罰 嚴重實行方針

震災後에 暴利를 貪하는 者 中에 暴利取締令에 據하야 處罰된 者가 十四日부터 二十五日外지에 三十四名의 多數에 達하얏는대 其中 最甚한 者는 日本橋區 北島町 永田峯吉인바 一圓 五十錢의 亞鉛板을 二圓 三十錢으로 賣한지라 罰金 二千八百圓 外 二千五百圓의 不當利益金을 沒收하얏고 又 日本橋 蠣殼町의 野崎淸造는 一圓 五十錢의 亞鉛板을 二圓 五十錢에 賣한지라 罰金 二百圓과 三千圓의 不當利益金을 沒收하얏고 警視廳에서는 今後 暴利를 貪할과 如한 者가 有하면 遺漏가 無히 嚴重히 處置할 方針이라더라(東京電)

甘粕事件公判 公開決定

甘粕大尉의 公判은 公開하기로 決定하얏는대 公判期日은 十月一日이나 三日의 兩日間으로 할 豫定인바 被告 甘粕의 辯護士는 塚崎 官選辯護士로 決定하고 〇〇〇〇側은 武富, 多々家의 兩辯護士에게 依賴하얏더라(東京電)

米第一救護船 廿七日入港

亞米利加本國의 救援船「홈」號는 第一船으로 二十七日 橫濱에 入港하얏는데 同船에는 多數의 傷病者를 收容할 모든 材料를 가젓스며

日中警官의 亂鬪 互相負傷者若干

二十八日 午後 四時頃 撫順 新市街에서 馬渡某라는 日本人이 中國巡警과 管理에게 無慘히 毆打를 當하는 것을 警察署의 巡査가 認하고 彼等을 追捕하야 巡査派出所에 引致하야 保護를 加하얏던 바 小後에 彼巡警의 一隊는 派出所를 襲擊하야 窓硝子 其他를 破壞하고 銃을 亂射하야 日本人 巡査 二名이 負傷되고 日本人 三名은 頭部에 銃創을 負한지라 日本 警官은 直히 中國巡警의 一隊에 應戰하야 一時는 激烈한 市街戰을 演하야 悽慘한 光景을 呈하얏는대 警務署로부터 應援隊를 急派한 結果 中國側은 逃走하얏고 負傷者는 直히 撫順病院에 收容하얏더라(奉天廿八日發)

水稻一割減收

二十日 以來로 急激한 寒冷의 度가 加하야 水稻 收穫의 影響이 多大하고 滿洲 水田米는 例年보다 約 一割의 減收이라더라(奉天二十八日發)

電信爲替開始 羅災地에 對하야

罹災地에 送하는 電信爲替 取扱 復活에 對하야는 遞信局에서 遞信省에 數次 交涉하던 바 十月一日부터 左의 制限에 依하야 取扱을 開始한다는데

一, 一人 一日 一百圓 以內
二, 拂渡局은 郵便集配事務를 取扱하는 局에 限하고 左記 各局은 當分間 取扱치 아니한다더라

神田, 下谷, 淺草, 九段, 麴町,

本年度 稻作豫想 比前年四分增收

朝鮮의 本年 水稻作을 調査하면 中部地方은 挿秧期에 降雨가 少하야 植付가 遲延되고 又 西道地方은 生育 最盛期와 開花期에 暴風雨의 襲來가 有하얏스나 激甚한 被害를 受한 것은 一局部에 不過하고 主要 米産地方인 南道地方은 植付當時부터 大槪 天候가 順調하얏슴으로 總收穫高는 前年에 比하야 顯著히 增收되리라 豫想하는 바 九月二十四日 作況에 徵하야 其 收穫豫想高는 一千五百四十九萬四千百五十七石인대 此를 前年 實收高 一千四百八十九萬四千八百九十五石에 比하면 五十九萬九千二百六十二石 卽 四分의 增收豫想인바 左에 水稻收穫高累年對照와 前年收穫高의 比較를 示하면 左와 如하더라(總督府農務課調査)

水稻收穫高累年對照

年次	收穫高(石)
大正七年	一五,一六六,四七四
同 八年	一二,六四九,一二九
同 九年	一四,七六五,二七三
同 十年	一四,二〇六,二七二
同 十一年	一四,八九四,八九五
同 十二年(第一回豫想高)	一五,四九四,一五七

地方別水稻豫想及前年實收高와의 比較及作況概要

道名	大正十二年收穫豫想高	大正十一年收穫高	大正十一年에對한增減(△印減)	作況概要
京畿	一,六六五,六〇七	一,五四四,六九九	一二〇,九〇八	良好
忠北	六〇七,〇四四	六八七,六二二	△八〇,五七八	稍不良
忠南	一,二五九,六〇二	一,三五二,四八〇	△九二,八七八	同
全北	一,八〇七,三一八	一,六六〇,四八四	一四六,八三四	良好
全南	二,一四八,一六〇	二,一四一,三三三	三三,八二五	同
慶北	二,三二九,八八五	二,三四四,八九五	△一五,〇一〇	稍不良
慶南	二,〇四七,三五三	一,八二三,三三四	二二四,〇一九	良好
黃海	八八二,一三三	七五九,四二七	一二二,七〇六	同
平南	四九五,一〇三	四九一,〇〇一	四,一〇二	一部水害를 受하얏스나 一般히 良好
平北	五〇七,三一四	六二一,四五一	△一一四,一三七	水害가 無한 地方은 稍良
江原	六六三,八二一	七七〇,三九九	△一〇六,五七八	普通
咸南	三四四,一六九	三六三,九九九	△一九,八三〇	良好
咸北	八六,九四四	七九,七二一	七,二二三	同
合計	一五,四九四,一五七	一四,八九四,八九五	五九九,二六二	

水產共進豫算

芝京橋, 深川, 日本橋, 本所, 赤坂, 橫濱, 長者町

十月十日부터 釜山에서 開催할 朝鮮水產共進會는 會期가 切迫함과 共히 諸設備를 進捗中인데 香椎 協贊會長은 二十八日 午後 大正公園 武德館에 協贊會役員 二百餘名을 召集하고 今日外지의 經過를 報告하고 左記 豫算案을 發表하얏더라

▲收入의 部 金六萬四千九百五十圓 一般會員募集金 ▲金三萬四千八百圓 各町內 割當寄附金 ▲金一萬二千圓 共進會 補助費 ▲計 十一萬一千七百五十圓 ▲支出의 部 金一萬八千五十圓 庶務費 ▲金二萬四千圓 共進會에 支出費 ▲金八千圓 歡迎費 ▲金三萬七千九百圓 設備費 ▲金八千九百圓 餘興費 ▲一千九百圓 豫備費 ▲合計 十一萬二千三十八圓

殖銀產業貸出 百十四萬圓增加

朝鮮殖産銀行 八月末 現在 公共及 產業貸付高는 合計 一億 一千六百八十三萬九千四百五十二圓인바 此를 七月末 現在 貸付高에 比較하면 百十四萬四千五百十九圓의 增加이며 更히 昨年 八月末 現在에 對比하면 一百二十萬三千圓에 對한 五萬九千圓의 減額이라더라

國有林貸付 監督

京畿道의 國有林을 貸付한 林野는 本年 三月末 現在에 五百七十五件에 達한 바 此件數 五萬五千七町步와 此 面積은 五千五百七十五件에 適하는 바 其成績은 良好치 못하야 從來부터 道廳에서는 郡廳에 借受人을 召集하고 狀況을 聽取하야 注意事項을 指示하는 等 進捗을 計하얏든바 本年은 各郡에 亘하야 面積 五町步 以上의 者에 對하야는 徹底的으로 監査하야 其他 進을 期코자 旣히 八月부터 郡에서 實地調査에 着手하얏는 바 本年中에는 終了할 豫定인데 其結果 成績이 佳한 者에 對하야는 斷然 返還을 命하야 整理할 方針이라 하며 貸付林의 成功 決定 標準은 本年 六月에 改正되얏슴으로 借受人에게는 非常히 有利하게 되얏다더라

客月物價低落 前年보다 四分四厘

朝鮮銀行 調査에 依하면 八月 卽 震災前의 京城 重要 物價는 三十一種 中에 前月에 比하야 昂騰한 者 十一種이며 低落한 者 十二種이오 其外 變動이 無한 者는 八種인바 此를 明治四十三年 七月中 物價를 百으로 하야 算出한 指數를 示하면 左와 如하더라

	八月	七月
生產品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品	[illegible]	[illegible]
平均指數	[illegible]	[illegible]

卽 生產品은 前月에 比하야 五毛가 昂騰하얏스나 輸移入品은 一分八厘七毛가 低落하야 結局 平均 七厘七毛가 低落하얏스며 前年 八月에 比하면 生産品은 四分五厘가 低落하고 輸移入品은 四分九厘七毛가 低落하야 平均 四分四厘六毛가 低落하얏고 騰落狀況을 示하면 左와 如하더라

▲騰貴 玄米, 精米, 小麥, 鹽, 鐵原紬, 松薪, 炭, 紙, 牛皮(以上 生産品) 綿花, 金物(以上 輸移入品)

▲低落 大麥, 大豆, 小豆, 明太, 牛腸(以上 生産品) 麥粉, 精糖, 綿絲, 玉洋木, 中國紬, 燐寸, 洋紙(以上 輸移入品)

▲不變 木棉, 木材(以上 生産品) 醬油, 淸酒, 麥酒, 石油, 石炭, 木材(以上 輸移入品)

繭綿增收豫想

朝鮮 本年 繭綿 產額은 昨年度 收穫보다 遙히 優良하야 約 四百萬圓, 綿絲 六百萬圓을 示하야 朝鮮 特産物 中 異數의 良績이 되얏더라

副業審查職員決定

朝鮮副業共進會 審査職員은 如左히 決定하고 會長이 各各 囑託하얏는바 審査는 一部 二部에 分하며 更히 出品種類에 依하야 各 部를 二十五科로 分하고 部屬을 定하야 審査를 實行한다더라

審査長 農事試驗場技師 / 審査部長 第一部長 總督府技師 第二部長同 中央試驗所技師 / 審査員 總督府技師 外 四十七名

總督歸任登程

渡東中이던 齋藤總督은 諸般 事務가 漸次 整理되얏슴으로 三十日 午前 汽船에 搭乘하야 大阪에서 一泊하고 一路 歸任할터이라더라(東京電)

辭令

朝鮮總督府郡屬 堀口勝太郞 / 任朝鮮總督府郡守 朝鮮總督府郡守 安藤俊夫 / 依願免本官 / 任裁判所通譯官(七等) 朴浴夏(以上九月二十八日附)

朝鮮總督府典獄補 小山延次 / 大正十二年度施行 朝鮮總督府看守長特別任用考試臨時委員을 命함 朝鮮公立師範學校敎諭 田正 / 同實業學校敎諭 佐藤三代治 / 同公立高等女學校敎諭 濟口 昌朗 鈴木 도미 / 大正十二年度施行 小學校及普通學校敎員試驗臨時委員을 命함 朝鮮總督府醫院醫官 橫山 茂樹 / 醫師試驗臨時委員을 命함

電信字數制限緩和

罹災地에 對한 通信機關은 漸次 秩序가 回復되고 電信回線도 順次로 開通됨에 從하야 從來에는 大阪에서 罹災地 外지 郵送하든 私報도 機械로 送하게 되얏스며 又 新聞電報는 內國에는 一日 五百字 以內로

消息

▲木本倉二氏(京電取締役) 三十日 午前十時發 退京

▲東京에서 暴利取締令이 發布된 後 奸商輩의 陰現가 頻々히 發生한다고 한다 ▲空前한 慘災로 無數한 白骨이 亂積한 中에서도 또한 罹災民의 飢寒에 따라 放하는 際에 不正의 利를 謀하며 徒히 精神이 잇서서 利를 圖하든 ▲須히 嚴罰을 加하야 이러한 無淚無情한 冷血動物은 如何한 社會를 勿論하고 根本的으로 退治할 必要가 잇다 ▲近來에 當局의 言論에 對한 取締가 너무도 苛酷하다 ▲萬一 이것이 震災後의 神經興奮의 餘響이라 하면 當局者의 冷靜한 考慮를 바란다 ▲어되 外지던지 言論機關이 全部 御用紙가 아닌 以上에는 忌憚업는 批判을 發表하는 것이 그 特色이 아닐가 한다

謹告

昨廿九日附 發行 本報 第一千一百二十七號는 記事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된 바가 有하야 當局의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를 發行 配付하얏기로 玆에 謝告함

東亞日報社

今日本紙六面

商況

◎鮮銀行券 (廿八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金利(二十七日) (一錢單位) 東京 大阪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廿九日着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는 [illegible]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는 [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는 [illegible]

大阪株式 廿九日 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大新 [illegible]

株式市場 京株賣買高

短期 三千三百九十枚
乙部 —
甲部 二千六百七十枚

廿九日의 京取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諸株一齊高騰 目前大新標準

二十九日 京取市場에 各地氣配入으로 하고 大阪大新은 六十二圓 七十錢 京取는 十四圓 ... 鐘紡新은 二百三十四圓 五十錢으로 高騰하게 報하고 木場人氣는 昂騰하야 應變에 長한 林慶來氏는 京取에 强材料를 掴出하야 投風迅雷的으로 硬化하야다 原因은 京取와

短期取引

廿九日	前場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中鐵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滿取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市場賣買價 (廿九日)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錦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關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華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絲布標準價

三A	二六六,〇〇
九A	二五八,〇〇
大A	二五六,〇〇
金剛山	二三〇,〇〇
金閣	二二九,〇〇
白頭山	一七五,〇〇
鳳鳴	一三八,〇〇
洋木 18	一三二,〇〇
五洋木	一三九,〇〇
金巾	一三六,〇〇
進京	一三三,〇〇
綿綿 10	二二八,〇〇
雙女 10	二二三,〇〇

各地穀物市場

廿九日 各市場 延取引 時勢

京城 現物

十月末 — 十一月中 — / 十月末 — 十二月中 — / 大豆實貨時勢 / 群山 / 大阪 / 釜山

㊅ 仲買店 店主 推浩 電話 [illegible]八〇番

十一月限의 經路 [illegible]

今朝鮮米穀 [illegible]

天寶商會 洋靴部 京城府 公平洞 [illegible]

大同券番 特別出演 朝鮮一流名唱 [illegible] 血의 河 [illegible] 朝鮮劇場 [illegible] 團成社 [illegible]

歸還同胞紹介 (二十六日夜德壽丸)

崔英鳴 鄭達守(女) 梁山 / 金相福 同 / 宣太玉(女) 蔚山 / 金松山 同 / 尹用學 李基成 金奉煥 許且成 申甲成 / 大邱 扶餘 淸道 同 / 金鎭伯 李文東 朴二和 宣寧 江陵 京城 / 金南漢 李仁植 李成賓 朴京元 / 永同 / 崔洛律 李鍾洪 崔大生 朴雲澤 / 蔚山 同 釜山 / 李南鍊 李奉九 同 安東 / 京城 固城 陝川 / 李伊程 李漢然 尹自學 / 金允昭 朴應化 沈觀弘 李昌主 / 京城 陝川 公州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學生은督學部로 勞働者는靑山에收容

이십일일부터착수하얏다

습지야(習志野)와 목흑 경마장(目黑競馬場)이외에 아직까지 동경각경찰서에 수용되야잇는 조선인학생과 로동자가 이천이백명이나되는데 그거의 불편과 식료의부족이 말이아닐뿐 아니라 경찰서편에서도 곤난함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출장한 관리는 관계관청과 교섭한결과 국뎡구중륙번뎡(麴町區中六番町)에잇는 류학생독학부(留學生督學府)안에 가급적 학생을 수용할준비중이오 로동자는 지포(芝浦)에 수용하랴든것을 변경하야 청산(靑山)에잇든 피란민수용소에 수용하기로 작뎡하야 이십일일부터 옴기기를시작하엿더라(동경특파원발)

阪神地方地震

손해는적엇다

이십구일 오전오시오십분 대판(大阪) 신호(神戶) 경도(京都) 디방에는 근래에드믈게격는 굿센 디진이 잇서서 일반시민은 크게놀내엿섯는데 대판측후소의 관측에의하면 다행히 진폭(振幅)이 극히미약하야 별반피해는 업슬것이라더라(대판뎐보)

埼玉縣下의 在留同胞八百名

신보개원에수용중이다

긔옥현(埼玉縣)디방에서도 조선사람의 곤난이 극도에달하얏슴으로 조선사람의 팔백명을 신보개원(神保開院)내에 수용중이라더라(특파원발신)

九十七名 이십구일에 列車로도送還

지포(芝浦)를 출발하야 편송한학생 구십칠명은 부산에 수송한후 각〃 그원적디로 보내게되얏스며 그배에는 긴급학생외에도 조선로동자 백명이잇섯다 동경에서 조선으로 도라가고자하는 조선학생은 매일삼십명에 한하야 이십구일부터 긔차로 수송하기로 결뎡되얏스며 로동자는 칠십명식 보내기로되얏다더라(고교시학관뎐보)

일긔가 불순한관계로 광제환(光濟丸)은 이십구일에 동경지...

昌福丸船長 朝鮮人便乘拒絶

불량한조선사람을태우는 것은위험하다는리유로서

동경진재디안에잇는 조선사람이 귀선창복환(昌福丸)이 조선을갈때에 태워가지고 가기로하고 각각준비를하야 배가떠나려할때에 창복환선장은 퀸세로 거절하얏는데 그리운은 불량한조선사람단데를 태우는것은 위험하다고 거절한것이며 창복환은 조선우선회사에 딸린배가 아닌것으로 우선회사의명령을 거절한것이나 이와가치 태워달나고 교섭하얏다가 거절당한 당국의데면도 밤이아니며 되지못한리유로 거절한 선남도 괴괴한일이다

收容中의三千同胞를차저 一日을눈물의習志野에

설은눈물, 반가운눈물, 형용조차못할눈물, 감격의눈물

◇本社東京特派員 李相協通信◇

人員三千二十四

학생이약일백칠십명 녀자도약륙십명잇다

동경부근에잇는 조선인을 가장다수히수용한곳은 천엽현하습지야(千葉縣下習志野)이다 나는 이십륙일(二十六日)부터 이곳을 방문하고저 관계관텽에 교섭하야 보앗스나 여의히 청취치못하고 십중에만답 ㄷ하지내든차 십구일에야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의장교와동반하야 한편으로는 수심도만코 한편으로는 반가웁기도한 길을 떠나서 자동차로 두시간만에 도착하얏다 습지야는 동경에서약 팔십리되는곳으로 긔병려단(騎兵旅團)의소재디이며 군대의련습장이 잇는데 조선사람을 수용한곳은 이전구주대전(歐洲大戰)에 청도(靑島)에서잡아온 독일포로를 두엇든 처소와 동경에서 군대가련습하라와서 묵든집으로 지금은 날가서 비여두엇든 함석가가의 두켜소인데 이곳에 수용되야잇는 조선사람이 삼천이십사명중에 학생이약일백칠십명이잇고 그외는 거의 전부가 로동자이오 녀자도 약륙십명이 잇고 어린아희들도 적지안타 하며그것에는 중국인 로동자도일천륙백구십명이잇다한다

每人前에 一日食糧은

쌀보리가두홉

수용소당이라는 내부소좌(內藤少佐)의게 대강상황에 대하야 설명을들엇다 처음에는 임시다수한사람이와서 량식과 기타여러가지로 곤난하얏스나 여러가지로 주선하야 량식도 하로한사람에 쌀두홉 보리두홉(일본되)식 주게되고 간신히 밥을 단아줄 그릇도변통하고 오늘부터는 처음으로 매일 로이 먹게되얏다하며 방을짓고 불배하고 청결하고 소제등은 자긔들로 하야금 하게하고 약간은 영문의 간단실에 나와서 운동하는것이 고 반찬은 그 식히며 심팔일 부터는 약간의 돈만큼 ... 도허락 하얏다 군대에 잇는 날 양한자도 잇는대로는 나누어 주어서 아모조록 편의를 도모하야 주겟다는 말을 하얏다

重病人과가치 皮骨相接한形容

진재이후혼잡중에 못먹고 못자면서 간장을태우는까닭

그뒤에 수용소당의 선도로 수용소 모양이 이러한가도 싶흔며 나의 심을 대강 보앗다 수용실의 출입구에 창서여 총을매인 병정이 파수를보고 그안에는 멍석한겹을 깔고 항렬을지어 늘어안진 광경은 이 귀시의 덕군포로를 수용하는 본경험으로 말하면 석기로는 감 옥공장의 광경과도 흡사하다 첫번에 그들을 대면하고 반가움기 보다 먼저 그들이 난것은 남녀로 소를 불론하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수척하다 하지만 그들은 다만 한사람 태산가지 밋고 바라 ...

兒母의乳液이枯渴되여

客地非常中에 崩城之痛

을당하고 눈물과 한숨에 싸인참혹

血管까지썰리는 感激의握手로

감사한인사를하는한편에 하염업는눈물만그렁그렁

그들은 나를보고 『동아일보사에서 오신분이요』하며 먼저 나를붓고 『동아일보사에는 남편과단들이붓들고 잇굴고 언어풍속이 뎐혀다르고 산천풍토도잔이 엇더케알앗는지 우리를 찻는다』는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 감격의 눈물로 ... 귀에들어간듯하야 나를보면 게 일히혈식업는 얼굴에 반가운 우숨을띄운다 어린아희들은 고국 의부모나 맛난듯이 팔을듯자 에 눈물이고이며 나의 내여미는 손을잡는 학생의손가락은 혈관까지썰니는듯하다 이와가를 광경 중에서 그들은 나의게 향하야 『고맙습니다』『반갑습니다』『얼마나고생을하셧슴닛가』하고 감사한인사를 바들째에 나는 무엇이라고 그들을 위로하여야 조흘른지 『안에잇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붓그럽에 솟는 눈물조차 억제가되엿다

약속뿐아니라 얼굴이 중병인과 가치 혈색을볼수가 업슬뿐아니라 기력이 권혀업서보이는 일이다 이것은 이곳에 와서 고생을한 까닭이라고 함보다는 디진에 놀나 고통에 혼이 나우에다가...... 몃칠동안을 먹지도못하고 자지도못하고 동경에서 이곳까지 팔 을가히 알것이다

四百名을治療中

이백명은외상환자이요 만은것은위장병의환자

병으로 치료를밧는사람이 사백명가량이나 되는데 그중에 이백명은 외상환자(外傷患者)이라 하며 다기외에 보통수용실에 긔거하는사람도 얼굴에 반창고부친사람 머리에 붕대를매인사람이 드문〃 적지아니한데 이러한사람은 볼문가지 죽은목숨을 간신히구한사람이요 기타에도 이곳에수용한 사람의 삼분지일은 과지사경의 비참한곤경을 격근사람이라한다 부상한 사람의다음 에는 각긔병자와 볼에대인사람이 매우신고를 한는 모양이며 체일만 흔것은 위장병자인데 긔갈에 견되지 못하야 못먹을 음식이라도 잇스면 먹고 현미 보리등좃디에 음식이 변한까닭이라 한다

失母日本兒를 騷亂中에

천신만고로보호하야 습지야까지

굴러온한夫人

상투를 아직도 앗기든 중늙은이 도잇고 십이삼세에 지나지못하 는 아해들도 적지아니한데 아희 들은 거의전부가 류리공장에서 로동을하얏다한다 『너의고향이 어디냐』물어본즉 대구 부산 밀 양』등이라는 아희가 거의전부 인것을보아도 경상도사람이만 히건너온것을 가히짐작하겟다 녀자도 륙칠십명이나 되는데 대 개는 남편을따라온 사람이며 그 ...

全部가赤手空拳

간절한소원은고국구경 그담은자유로행동이다

그들의 가장가 절히 소원하는것 은하로라도 밧비 고국에 도라오 는 일인데 『이곳에잇서서는 오날 날까지도모지 이러케살아잇서도 마음에도 산것갓지안타』하는것 이그들의 감상이다 그다음에는 다 고 담배를좀 나가다니며 싸다니 의손에 매여잇는 몸이 밧게 아 모것도 가지지못하얏슴은 조건 외에 ...

사람의 어린아희를 다리고 퀸신만 중에는 일본녀자로서 남편이 조 선사람인까닭에 부부가 함께 수용되야 포로와 가튼생활을 하는 사람도 오륙인이 나잇는것을 보 앗다 소란통에어머니를 일본

고를겨그면서 이곳까지 다리고 자긔자식가치 애지중지하는 북 청(北靑)생장의부인도 수용소안 의한리아기재료가되야잇다

無心한夕陽만 悲劇의 장면을비취운다

동경의디진도 본래 추측할수 업 는일이오 우리의 운명도 본래 알 수가업지마는 오늘날 이곳에서 이광경을볼줄이야 더욱이 누구 가 꿈이나 꾸엇스랴 참혹여명의 눈상한 형데를 일일히 도라보지 도못하고 동경에 도라갈시각이 덜미를 집혀에 무심한 석양만 큰 비극의 마당에빗기엿다(동경특 파원)

光濟丸回航便에 學生三四百名을

실어보내기로하엿다

동경근방에잇는 조선사람들은 청 차로 돌려보낼방침을 취하는 데부분이 조선에 속히 도라가기 를희망함을 불계하고 관령에서 는 일체허락지아니하며 계엄디 역(戒嚴地域)을 버서나간사람 도 중도에서붓들리는데 긔어코 가겟다는 사람을 언제까지 붓들 수도업고 차수를 분하야 엇든 신경 도 령정하야 가는줄 짐작할인지 ... 일으로 광제환(光濟丸)이 이십일일 동경만에 들어와서 일주일가량잇다가 조선으로 돌아갈터인데 그배의 회편에 평시에사상이 온건하다고 관리가 인뎡하는 학생을 삼사백명 돌녀보냄의 향인듯하더라(東京特派員通信)

金相玉事件 內幕이暴露乎

오복영의테포가단서되야

세상의 이목을 놀내이든 김상옥(金相玉)사건의 자세한내경은 마침내 김상옥의 죽음으로 인하야 이번오리무중에 잠기엇섯는데 이번에 종로경찰서고등게에서는 다시 그런두자의 거취에 대한 단서를 엇어 중국텬진(中國天津)에서 오복영(吳福泳)의 세명을 데포하야다가 목하극력취조중인데 오복영은 김상옥의 심복동지로 김상옥이가 텬진에서 데비행동을 할때에 미인계를 써서 모국무관 ... 의놀음을 속히어 졸비를 완성케한 것도 오복영의 솜씨 이엇다는데 필경 영원한 비밀에 잠길줄아럿 든김상옥 사건의내용도 오복영 의데포로인하야 관명되얏다더라

死刑宣告바든 二人上告

신건원사건피고

신건원(新乾院)주재소를습격한 의뒤를따라 한것도 ...

步兵,巡查大格鬪

오좀눈것으로말성되야

보병팔명은룡산헌병대에 순사세명은본뎡서에인치

昨日午後大漢門前의活劇

작일오후세시오십분경에 대평통(太平通) 대한문(大漢門)압헤서 조선보병대(朝鮮步兵隊)의군인 여덜명과 본뎡경찰서 순사 세명이 한곳에어울어 한바탕 크게싸왓는데 그부근에는 금시에 수백명군중이 모혀들어 큰 자루와 총창소리가 랑자한 근래의 드믄싸홈을 구경하노라고 일대혼잡을 이루엇스며 이긔별을 들은 본뎡서에서는 서원일동이 거의총출동 하얏스며 경긔도 경찰부에서도 다수한 계원이 현장에 출동하야 간신히진뎡식히고 순사는 본뎡서로 군인은 룡산헌병대에 위천인치하얏는데 그군인여덜명이 룡산에 나갓다가 도라오는길에 남대문밧 삼판통(三坂通)으로 들어가는길어구에서 오좀누는것을 남대문파출소 순사가보고 매우불온하야 군인들이 ■사죄하는것을 불구하고 쌍방에서 셔로때린결과 군인들도 다시 분개하야 순사를 쇠울고 조산보병대로가자하야 대한문부근까지 서로밀치며 닥치며오다가 그곳에서 한마당격투를 시작한것이라는데 오좀눈군인은 강재석(姜在石)(二五)이라하며 사건은 매우 확대될 모양이라더라

可憐한몸 휘감기는不幸

생명가든집이 문어저또비극

고양군한지면신당리(高陽郡漢芝面新堂里)에서 자긔집업시 오륙명식구를 거나리고 남의집으로 도라다니든 명성화(鄭聖化)(五五)는 마을사람들의 호의로 집한채를 어더든바 그러임자인 전산(前山)이란 일본사람이 『이것은 버려이닛가 빨니짐을허러 바리라』고 독촉이 자심함으로 할수업시 ...

라올으는愛情에

男女가先後하야情死

주위의사정불허가원인

고양군 한지면상왕십리(高陽郡漢芝面上往十里) 삼백이십이번디 삼유관(三遊館)포리뎜에 작부로잇는 박수덕(朴壽德)(二七)이란 녀자는 작일오후 네시경에로 ...

電報爲替

졔한부로개시

리재디로가는 뎐신위톄(電信爲替)취급에대하야 데신국으로부터 동경데신성(遞信省)으로 루차 교섭을하얏든바 십월일일로부터 좌의제한에의하야 취급을 개시하기로 결뎡하얏다더라

一, 한사람이 한번에 백원이내로한하야보냄

二, 돈내주는우편국(郵便局)은 우편집배사무(郵便集配事務)를 취급하는우편국에한함

단 아래에 긔록한 우편국은 당분간은 취급하지아니함 神田, 下谷, 淺草, 九段, 麴町, 芝, 京橋, 深川, 日本橋, 本所, 赤坂, 橫濱, 長者町

休日에도取扱

시정긔념일(施政紀念日)은 일요일임으로 우편국에서 환권(爲替)취급을 하지아니할터이나 특히 동경행환등의 리재디로 가는 데신환권(電信爲替)에 한하야 ...

◇......모 임......◇

▲중앙긔독교청년회 에서는 금 삽십일 하오세시반부터 社會問題에 대한 강연회를 ...

二十五日間連命

물만마시고

디진중에 집에 치인녀학생

옷장사가卒倒

본뎡길가에서

本社東京特派員 第三回安否調査到着

各處에散在한學生과習志野收容中一部

본사동경특파원의 데삼회안부조사가 도착되엿슴니다 여사가치 이허다지인 학생이 대부분이며 또 습지야(習志野)에 수용중인동포도 일부를조사하엿스나 역시 조사된대부분이 학생인것은 별항특파원의 통신을보아도알겟거니와 여러가지로 불여의한 주위의사정으로 그리된것을 명백히하여주기를바라는바이며 간혹이왕보도된것과 중복된이도잇슬는지알수업스나 무사한소식이면 중복되도무방하겟기로 위선도착되는대로 보도하기로하엿스며 전례에의하야 아모그록도업는것은 무사한것이외다

習志野收容學生

氏名	校名
金昌烈	高等豫備
申衡鎬	名教中學
朴炳珏	正則英語
金浜前	研數學館
孫泰鎬	同
鄭遜卿	日進英校
曹斗煥	正則學校
李廷浩	同
申斗化	商工學校
高則高	大興學校
金東鎬	京城英學
李三植	工科學校
李在植	向島小學
陳金洙	同
任開壽	正則學校
朴大龍	研數學館
李根浩	正則學校
柳然台	大成中學
朴聖駿	同
金相鶴	同
李成白	正則學校
金秀弘	江東商校
洪成烈	正則學校
元道顯	名教中學
朴泰均	舟松中學
金在淳	京橋中學
楊泰先	大原簿記
崔浩喆	東洋大學
尹斗燮	正則學校
沈昇燦	同
金弘順	物理學校
金昌鎭	研數學館
朴永達	同
李龍玉	岩倉鐵道
趙文植	簡記專修
吳琉洙	正則學校
金東煥	同
鄭五彩	日進英校
金斗五	名教中學
曹圭淑	松山高校
李正君	日本大學
韓淑源	明治商業
金炯洙	正則英校
金炳浩	日本大學
韓壺台	正則學校
金岩宇	東京主計
金成三	電氣學校
金仁植	正則學校
金激	日進學校

同第二舍收容

同第三舍收容

各處散在學生

◇휴지통▲국경방면에는 ...

ClibPDF - www.fastio.com

泣血鳥 (읍혈조)

【116】 李熙喆作 盧壽鉉畵

─선희는 이모든것을 생각하매 아까지미업시 도라가라는 향란의 모양을볼때에 아상하게 도망이 산뜻하여지는듯 하엿다 그러고 그것은나를도아 주던자가다시는 너를아니도라 본다하고선언 할때에 밧는감각과비슷한것이엿다

선희는 벌떡이러서서 향란의 팔을 가볍잡고 열니드시우스며 하고 그개를기우려향란의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하엿다 한쪽향란은니어허々하고웃스며

『요런』하고선희의뺨을두손으로꼭누르려고한다

『자 가긴 올나오렴 내오늘은 특별히 언니라고할게』

하고선희가 다시말한즉 향란은 얼굴빗을붉히며

『별니가야지 또다른데로단여가여야할데가 잇스니갓』하고조곰도릉々거리는태도로말한다

『그래두 엇더케와다가그대로─자 올나오렴 머그러케밥부기야하리 아직이른아츰인데』

선희는 향란의팔을 잡아끌려단여다 한즉향란도 못견듸는체하고산을벗고 다시 마루우로올나섯다

『내방으로드러가자 그러구아츰밥이나 먹고가렴』

향란은 번쩍々우스며 자긔는 아모말도업시 선희를따라 선희의방으로 드러갓다

『그런데 오늘 어듸 조흔노름판이생겻니?』

『머 너이케는 갈맘이생것게 그런말을뭇느냐 난 네가먼저간다고하랄을하여야 말을할테고 그러치아느면 안할테야』

하고 향란도이케야맘이 드러서서 이러케말하엿다

『가기야 네가청조라면아니가겟니 하지만 나도오늘아츰어디좀단여올데가잇서서 그려지』선희는 말할뻐에 무슨생각집흔태도를보엿다

『어머를 다녀와』

『강화련관 김서방한테』

『김서방한테 무엇하러』

향란은 조금 놀낸모양을보인다 그런데선희는갑작이머닥할말시거리를 이저버린듯 잠간망연한 식으로 잇다가고개를숙여 자긔손을한번 불그려미 드려다본후 다시고개를드러 향란을바라보며

『무슨일이 좀잇서……』

하고 긔운업시 말을하엿다

『무슨일이 잇서서?』

향란은 선희의얼굴로 밧삭다거안스며 긔어히 알고말니라하는태도로 다시이러케무럿다 선희도 이제는 웬일인지 긔분이가비얍아지며

『글세 어제오권열한시쯤인가해서 김서방이우리집에를 차자와서 나더러놀너가자고하데 그래어디를 놀너가자느냐고 무른즉 오늘은가영도사에서 크게한턱을버는데 우리가 못간서방도런서 거긔를나가쟈고하지……』

선희가어그가지말하는데향란은 무슨생각이 잇는지 갑작이 어려운듯

『어케오권열한시쯤해서 김서방이 여긔를왓서?』

『어 오권열시쯤해서』 향란은 고개를 주억々々하다 한쪽선희는 더말하고싶흔 생각이나서

『그래 나도집에잇는것보다는 자미가잇슬것갓해서 그러면 간다고 이러케김서방을따라서 영도사에를 가지안엇냐 간즉중서방도잇고 차서방도잇고 그밧게누구々 모를사람도 여러사람모혀잇데 그런데웬일인지 우리서방님은업서 그래 어데갓느냐고 무른즉 한는말이 쏙 나온다고하더니 아직아니나왓고 또그것은 그럿다하더라도 녀자라고나혼자뿐이야 그래서 나는갑작이 뭄이안한생각이이러나서다시드러오라고하닛가 그때에는 그럴에잇느냐하며 붓잡고 야단을하데 그런데 더이상한고 괘씸한것은 가만히 눈치를보닛가 여긔가서지 요리조리 몸을피하라고해보데 그러치만 엇더케할수잇서야 씀덕々 커긔가서 씀덕々 하는 그자들의태도가 아모리도나를무슨 무엇에잡아 녀려는것갓기도하고 또는앙을내어야단을치보기도 하엿지만 도모지도망해날수가 엄단말이야 그래서나도 나종에는 에라이자식들이 무슨짓을하라고 그런는가보자 하고 그냥거긔잇기로하엿구만……』

하고 선희는다시 말을계속하야 그로부터 술상이드러오고 소리할줄모르는자긔에게 작고소리를 하라고 강청하던일과 또는술을 억지로 메기던것과 그러고나종에는 그자들이 자긔몸에대하야 온당치못한일을하던일까지다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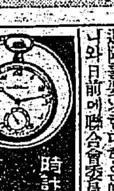
『글세 그김서방이죽일놈이야 너가 나를다려다가 그런줄을하려고엿간』

新聞協會設立 在邱各記者가

大邱在住各新聞通信雜誌記者로써言論報道機關全體에關聯하는共通的問題에對하야協力하야適切한態度를取함으로써目的하는新聞協會를組織하고자그의第一回總會를去卅三日午後三時大邱府商館樓上에開하야設立趣意書와協會規約案을通過한後幹事五人을選定하얏는데被選된幹事는江上(釜日)久納(朝民)徐相日(東亞)增田(福日)橫瀨(京日)諸氏이며同會發會式은今二十九日에官民代表約四十名을招待하야擧行하자는決議로終會를告하고同四時半閉會하얏는데當日出席會員이二十餘名이더라(大邱)

農聯代表에게 徐氏는實行言明

全南順天農民大會聯合會에서는郡內大地主를巡回訪問하야既히小作人으로부터受取한地稅金의返附를要求한다함은既報하얏거니와日前에聯合會委員五人과各面代表十三人은同郡內의大地主이며參議인徐丙奎氏를訪問하고請稅金返附와小作料를四割以內로實行할事를要求한바氏는同情한다는意를表하고率先하야모든條件을實行할터이라고言明하얏더라(順天)



時計及眼鏡 友助堂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五〇二番五九一八 振替 定價表進呈

堀業島救濟 仁川水産會에서

向日暴風雨로因하야破滅을當한仁川港外堀業島의罹災民을救濟코자京畿道水産會에서는其方法을研究中이든바今般決定되얏다는데其救濟方法은死亡者四十圓以內行方不明,重傷者,其他救濟의必要를認하는者二十圓以內船舶全破者三十五圓以內限度로救濟하기로하얏다더라(仁川)

平壤苦學相助 밤버리갑準備

前途에無限한希望을懷하고그天賦한生을暢達키爲하야筴을負하고鄕關을辭하야都會地로來하얏스나오직『金錢』의無코는그目的한敎育을受할수업는것이現在의社會制度이다그러나百折不屈하는勇氣와精神으로써期於히所期의目的을達코져崎嶇한世路의蛟坂을上下하며滄茫한人海의狂瀾을不惜하고勤勉苦學하는靑年이平壤市內에百餘名이有하다그들은課餘에或人力車夫가되며給水夫가되며配達夫가되야僅少한收入으로艱難과奮鬪하며忍爲치못할事를敢行하는그悽慘한境遇은實로形容키難하다그들이今年夏期平壤市內各學校의同一한處地에在한學生을糾合하야『苦學生相助會』라는것을組織코자發起中이더니過月에創立總會를開催하고各任員을選定하얏스며市內有志十餘人을顧問으로推戴하얏는데九月廿四日午後八時平壤基督敎靑年會館內에서幹事會를開催하고事業進行方針을討議한바爲先家屋을賃借하야菓子或은『엿』의販賣를開始하기로하얏더라(平壤)

全山淸庭球戰 加入十四組

慶南山淸郡에서는本社山淸分局主催로去九月二十三日午前八時부터當地公普코-트에서全山淸庭球大會를吳明鎭氏主審下에開하얏는데抽籤에依하야進行된戰績及和對는如左하더라

◇第一回豫選戰(◎은勝)
△沈判守宋準元對吳明鎭崔慶燮
△紀寬良鄭点參對山本外攻朴明東
△尹弼顯李相乙對宋時開王福起
△文昌洙河重俟對愼允玉曹相根
△吳元澤趙廷尹對吳鳳澤崔鳳文
△崔煥勝用煥對李相修尹在成
△朴明東境久登對王吉福鄭昌湜
◇第二回豫選戰
△文昌洙河重俟對沈判守宋準元
△尹弼顯李相乙對朴明東境久登
△紀寬良鄭点參對崔煥勝用煥
△吳元澤趙廷尹不戰勝
◇第三回豫選戰
△紀寬良鄭点參對文昌洙河重俟
△吳元澤趙廷尹對尹弼顯李相乙
으로無事히終了되고다시最後決勝戰은吳元澤趙廷尹對紀寬良鄭点參間에開戰되니兩軍의戰勢는吳上莫下하얏스나結局最後勝利는紀寬良鄭点參君에게歸하얏더라(山淸)

仁川仁培會臨總會

在仁京城培材通學生及卒業生으로組織된仁培會臨時總會는去二十二日下午七時三十分內里禮拜堂에서開催되야會長李宅運君의司會로點名과前會錄朗讀이有한後各部報告가잇섯고幹部總辭任에伴하야任員을如左히改選하고會費徵收及將來事業擴張方針을決議한後同會事務所를東亞日報仁川支局에置하기로滿場一致可決後閉會하얏더라

會長李吉用(卒)總務殿永燮(在)書記韓相鳳金潤鋼(卒)會計金昌成(在)崔燦業(卒)幹事金澤永(卒)金鎔哲(在)郭弘基(在)文藝部長洪璨(卒)運動部長李寶運(在)社交部長張仁一(卒)音樂部長尹大錫(卒)(仁川)

鄭台允氏의美擧

京畿道安城郡邑內面道基里鄭台允氏는元來慈善心이豊富하야附近貧民에施惠한事이種々有할뿐아니라特히小作人에對하야便宜를與하는同時에他地主에比하야小作料를輕減함이多함으로一般이稱道하는바今番東京震災以來로金融이梗塞함을隨하야同里及其附近桂村里貧民六十餘戶가生活上甚히困難하게되얏는데鄭氏는此可矜한情狀에同情하야正租七石을分給하얏다더라(安城)

仁川勞働夜學開始

仁川救助組合에서는來十月一日부터永化學校에勞働夜學을開始한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去二十二日任員會를開하고同組合敎育部任員을左와如히選定하얏는데敎科目은初等인바朝鮮語算術漢文日語等이라더라

敎育部長(未定)敎員張英鎭朱昕奎秦完協高永雨劉斗熙羅聚勳金昌鍋宋壽安(仁川)

价川農作物狀況

平南价川郡廳調査에依한今年農作物의狀況을聞한즉昨年보다減收이라는데豫想高는如左하더라

大豆收穫豫想高 一四,一〇〇石
比昨年 九分三厘增加
粟收穫豫想高 四三,六四二石
比昨年 三分二厘減
水稻收穫豫想高 八,八一八石
比昨年 一割三分減
棉收穫豫想高 一八七,五五一斤
比昨年 二割四分七厘減
(价川)

利川公普夜學開始

利川邑內公立普通學校에서는九月二十五日부터夜學을開始하얏는데學生은男女四十名에限하야募集하고敎授는村上校長以下九人이라더라(利川)

閔氏又復指環寄贈

江東郡古邑面明里居歸鎭齊妻李氏가向者前後二回에左右兩指環을寄贈하야其夫의危急을救하엿다함에對하야今般京城閔泳徽氏로부터其烈行을表賞키爲하야金指環一個를古邑面長을經由하야李氏에게贈與하얏더라(江東)

鴻山扶餘兩校庭球

忠南鴻山公普와扶餘公普兩校生徒의庭球戰은九月八日鴻山公普運動場에서開催되얏는데勝利는鴻山에歸하얏더라(公州)

兩處同胞安否續報

東京震災時罹災同胞中仁川在籍者의消息은累次續報한바어니와其後繼續하야去二十六日까지安全의消息잇는仁川及江華同胞는如左하더라

◇歸還同胞 仁川府張壽根,蔣町方泰淳

◇安全한同胞 仁川松峴里朴東毅(二一),江華郡吉祥面溫水里金健七,金鳳順(二三),同郡三山面劉敬成(二五),仁川山根町金炯大(二四)는神戶滯在江華吉祥面金銀九,高鳳海,鄭鳳昌,同郡府內面新門里吳永燮(二三),吳貞植(二二),同邑千奉俊,金運榮女,仁川府吳貞明,河得愛,吳仁明,吳貞明,吳順明,吳天明,江華月道面尹銀九,仁川松峴里申吉隨(一八)申興龍(一六),江華郡金成陳(一八),金点順(二〇),朴九業(二〇),仁川內里韓二鳳(一六),外里高翊謙(一八)(仁川)

紀務講習所好績

咸樂湖耶蘇敎監理會에서는今年秋期에紀務講習所를創立하고生徒男女三十餘名을募集하야同敎堂內에서敎授하는中인데財政이窘乏함으로金聖淑孃이無報酬로熱心敎授하야成績이良好하더라(龍岡)

井邑救災素人劇

井邑靑年會에서는西鮮同胞水災와日本關東一帶震災救濟를目的으로陰八月十七日부터素人劇을興行하엿더라(井邑)

에쓰페란토講習會

嶺南補商工學校에서는에쓰페란토講習會를去二十二日부터同學校內에開하얏는데期間은三週日이라하며講習生도多數하다더라(鎭南浦)

郵便配達에大不平

全南麗水郡南面은同郡突山郵便所의配達區域인바當局者의不注意함인지郵便物의配達遲延은어니라或은配達夫가人便을利用하야郵便物을托送하는事가有함으로다라서其郵便物의到着이遲延될時가許多하며又는全然受信人處에到着치아니하는時도不無하야一般의不平이多하다는데同面民明昌源氏는此에對하야不遠間當局에具體的交涉을할터이라더라(麗水)

西鮮水災救濟活動

過般西鮮地方洪水와海嘯의禍는空前의慘狀이라罹災한同胞가呼寒泣飢한다는이에一般은悲然坐視하리요이에鐵原勞働會鐵原靑年會少年會東州三業組合鐵原靑年會東亞日報支局等各團體가發起하야救濟會를組織하고委員을選定한後市內一般을訪問하며救濟金募集에努力中이라더라(鐵原)

永同親睦契寄附

永同의實業家와有志人士等을網羅하야年前에組織된永同親睦契에서는年來로一般公共事業에貢獻이不少한바昨年永同靑年會館을建築하는時에도數百圓을義捐하얏스며昨今兩年의西鮮水災에도不少한金을出捐하얏슴으로一般의稱頌이多하든바今般永同勞働共濟會의經費가窮塞하다는消息을듯고또한五十圓의金額을捐助하얏다더라(永同)

嶺美夜學期成會

慶南同盟會의經營인京義線嶺美에는一個의敎育機關이업서一般의遺憾이든바今般有志人士는一同은期成會를組織하고爲先夜學校를設立하는同時에今秋부터開學하기로決議하고義捐金을大々的募集中이라더라(嶺美)

扶安婦人夜學會

全北扶安靑年會主催로例年과가치婦人夜學會를開催한바出席學生數가既히四十餘名에達하얏다더라(扶安)

長城水災震災義捐

東京震災와西鮮水災를救濟하기爲하야九月十五日에長城郡北二面茅峴里敎北靑年會事務室에靑年들이會集하야救濟會를組織한바此에對하야出捐人士의芳名은如左하더라

湛栖潤金錦潤德東則各一圓金相縷十圓金炳河二圓金華玉李公振金炯洙金箕鮮孔秉湊金章洙樂字賢各一圓金相殷二圓田錫璡金相禹奇字樂各一圓孔南烈五圓李東根三圓李炳現申明秀各一圓金嬉二圓(以下略)(長城)

定州震災救金募集

定州郡에서는日本의大震災를救濟하기爲하야九月二十二日에各面長及有力者等五十餘人을公立普通學校에召集하고定州郡守李鍾殷氏의說明이有한後救濟金募集額數는定州面을除한外十八面에二千圓을左의方法으로募集하기로配定하얏다더라

特等十五圓,十圓,七圓,五圓,四圓(定州)

北咸間自動車開通

北靑咸興間에는去十三日부터金光自動車部의自動車가開通되얏는바同自動車는從來의牛額으로乘客의便利를圖한다더라(北靑)

務安郡敎育研究會

全南務安郡에서는管下二十一面

西鮮救災同情募集

慶南山淸郡에서는水害로因하야慘狀에泣하는西鮮同胞를救濟키爲하야山淸靑年會及本社山淸分局主催로同情金을募集하는中인바募集期限은十月十五日까지인데一般有志는多少를不拘하고同情하기를希望한다더라(山淸)

咸安郡敎育會設立

咸安郡에서는九月廿二日午前十一時부터咸安郡內公立普通學校長을召集하야咸安郡敎育會를組織하얏는데選任된役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咸安郡守理事各公立普通學校長(郡北)

咸安西鮮救災募金

咸安郡守鄭舜卿氏는西鮮罹災同胞를救助하기爲하야管內各面에公文을發하야救濟金을募集中인바目下外지募集된金額은一百六十餘圓에達하는바 後千圓을限하야募集計劃이라하며送金方法은道當局에依賴한다더라(郡北)

東京在留同胞及西鮮罹災民 救濟會

同情金은多少를不拘함
取扱所는利原靑年會聯合會
時日은本年十月末日까지

主催
利原靑年會聯合會
利原基督靑年聯合會
利原天道敎靑年會
利原郡商務會
朝鮮日報利原分局
東亞日報利原分局

水産共進割引發行

今秋釜山에서開催되는水産共進會에觀覽하기爲하야仁川驛에서는汽車割引劵을發行한다는데[illegible](仁川)

米國艦隊寄港延期

去二十七日까지에는仁川에寄港한다는米國艦隊는[illegible]延期된다더라(仁川)

木浦慰問委員來南

過般西鮮水害의慘報를接한木浦靑年會에서는同情金을募集하야가지고同會代表文在喆氏가去二十三日鎭南浦에來着하야慰問의意를表하고金四十二圓五錢을當地水害救濟會에寄附하얏다더라(鎭南浦)

豐友親睦會同情

北靑高普講習所에在學하는豐山學生三十餘名은友睦을致하며患難을相助하기爲하야過般豐友親睦會를組織하고有志의同情金[illegible](北靑)

大邱의에스語講習

十月一日부터向三週間大邱鮮南病院內에서에스페란토語講習會를開催하는데[illegible](大邱)

仁川水道課移轉乎

在來仁川府廳內에在한仁川府水道課를[illegible](仁川)

閔氏同情金傳達

可憐한處地에在한無依無家한孤兒들과苦學하는靑年들을爲하야京城閔泳徽氏로부터[illegible]平壤孤兒院에五百圓과[illegible](平壤)

木浦人士水害慰問

全南木浦府民들은西鮮地方水害同情金을慰問코자同地靑年會의主催로九月二十二日同地文在喆氏를代表로選定하야同情金을携하고平壤鎭南浦에四十二圓新義州에百圓을送付하얏더라(平壤)

咸安에도震災募金

過般東京震災로因하야慘狀을當한罹災民을救濟하기爲하야咸安郡守鄭舜卿氏는管內各面長에게依託하야目下救濟金을募集中인바九月二十二日外지現金으로千圓可히을募集하얏다더라(郡北)

●宜川面副長 宜川郡宜川面은今年四月부터指定面으로昇格되얏스나以來面副長의椅子가闕員되야郡當局은人選에頗히苦心中이든바結局安井甲子二郞君이任命되야去二十日부터執務(宜川)

●仁川署移轉視務 今月二十三四日頃에新築廳舍로移轉한다든仁川警察署는少遲延하야二十六日부터山手町新廳舍로移轉視務(仁川)

●聯合品評과富川出品 富川郡에서는來十一月十四日부터開催[illegible]十七點의農産物其他工藝品을出品하기로하얏더라(富川)

●永川合同秋季大運動會 [illegible](永川)

●商工學校運動會 鎭南浦商工學校에서는去二十二日秋期運動會를同校運動場에서擧行하얏더라(鎭南浦)

●三一敎會復興會 [illegible](釜山)

忠北靑年修養團

[illegible]永同郡公立普通學校에서永同沃川報恩三郡의普通學校(略十五校)의卒業生中에有望한靑年으로一般靑年의中堅이되라는目的으로[illegible]

善山靑年會救濟劇

善山郡에서는當地靑年會主催로西鮮水害東京震災救濟演劇團을組織하야去二十日부터郡內九面에巡廻興行한바成績이良好하[illegible](善山)

麗水靑年定期總會

全南麗水靑年會에서는第六回定期總會를去二十三日下午九時부터同會館에開하고[illegible]左記各項을決議하얏더라
一 規則改定
一 任員改選
一 會館維持方針
一 新舊事業(麗水)

各地靑年團體

北靑女子靑年講習

北靑女子靑年會에서는[illegible](北靑)

馬山勉勵靑年總會

馬山耶蘇敎勉勵靑年會에서는九月二十一日下午八時에文昌禮拜堂에서總會를開하얏는데[illegible]
▲會長李九章▲總務[illegible](馬山)

商況

[illegible]

二節	二十三圓三錢	
三節	二十三圓十五錢	
四節	二十三圓二十二錢	
五節	二十三圓二十五錢	
六節	二十三圓十八錢	

大阪期米(廿九日) 前場 後場 [illegible]

六〇六號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ドカリ丸 (요-도가리환)
[illegible]
販賣所 博愛堂 京城光化門

特別廣告

美國上上品補材藥

身體의外部와內部를健康케하는이世上에第一貴重한强壯劑올시다 此補材藥은普通補材藥과不同하야身體의모든不潔한것을깨끗케하야人生의新生命을주느니다 此藥을服用하시면食慾을增進케하고消化를助하고貧血을豊富케하고神經을健强케하나이다 普通補劑를服用하고無効하거던此靈藥을服用하시오 靈藥은服用當時만有効할뿐아니라服後에多大한効力을見하나니다 雖某던지健强劑를要求하시면此美國上上品補材藥을服用하시오長壽하오리다

美國上上品萬病水

此靈藥을服用하야數十萬人을得効케하얏슴으로이世上에서一病에罹하야辛苦하시는僉彥은一次試服하시오百藥無効한症이라도見効하오리다 萬一見効치못하시는僉彥은[illegible] 此靈藥에合當한病은이루다말할수업기에 대개몇가지病名만記錄함니다

[illegible]

美國上上品金鷄納

美國으로부터直輸入하야本院에서方今發賣하는金鷄納은世界에普通金鷄納이아오니特上品金鷄納이오니[illegible]속히注文하시오

▲美國上上品補材藥 一瓶 定價金 二圓
▲美國上上萬病水 一瓶 定價金 一圓九拾錢
▲美國上上品金鷄納 一瓶 定價金 一圓八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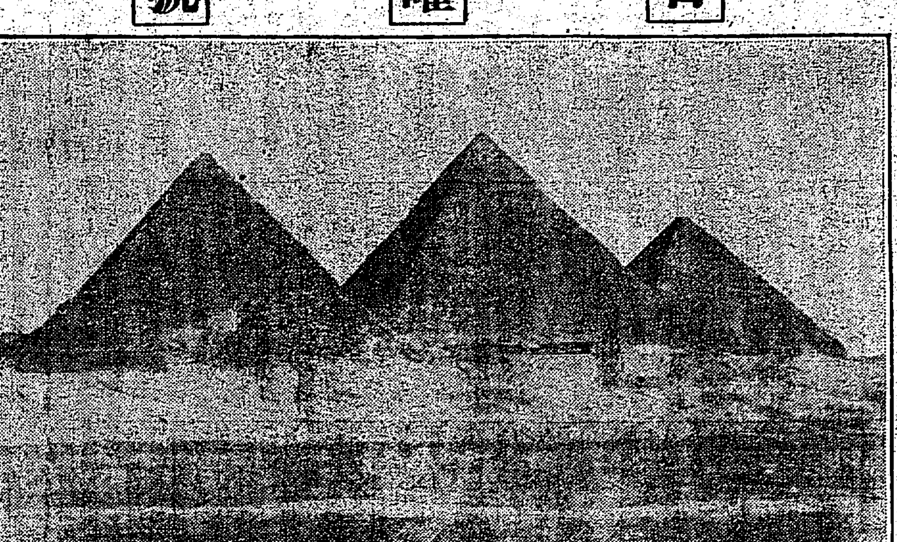
(一瓶分量二十九구람朝鮮重數로는七錢五分餘也)

勿論某處하고引換代金으로酬應함
廣告冊을見코저하시면無代進呈함

朝鮮釜山港 美國醫學博士 魚乙彬 告白

ClibPDF - www.fastio.com

日曜號



埃及의『피라미드』塔 ―世界의驚異―

紀元初葉에 羅馬及希臘人의世界七驚異中에 最先으로埃及의『피라미드』를指摘하엿다 此『피라미드』는即埃及古墳이니 其中最古한者는約六千八百年前인데 埃及의文明은其時로부터五千餘年前의事實이엇다 位置는北埃及의中央地에限하야『마일』江畔에散在하얏스며 年代는六千八百年과六千七百年間의埃及諸王의事業이다

特히『쉐사』地方에在한三大『피라미드』中第一은埃及第四朝의第一王『쿠푸』의建築이니『쿠푸』王은改革者로當時에人民의迷信을打破하고自己의墳墓를建築하엿는데 埃及은沙漠이多하야石材가無함으로亞剌比亞의『시나』山에서採掘하야陸路와水路로『나일』江畔外지運搬하고『쉐사』外지는大路를新築하야써交通에便케하엿다 石材는長卅尺以下가無하얏슴으로運搬의努力은比할수업섯다 『나일』江畔에서『쉐사』間에道路建築에만十年을費하얏고 『피라미드』는또二十年을經하얏다 長은八百英尺이요 塔底는四方이七百六十三尺式인데 總高는四百八十英尺이며 塔의基地는十三에거(我에거四段二十四步)이며 人夫十萬을使用하얏고 資本金을推算하면八百五十萬磅이나致하엿스리라한다

第二『피라미드』는『쿠푸』王의後繼王의建築인데 高四百四十三尺이며 第三『피라미드』는高不過二百十六尺이다

에쓰페란토에 對하야

金億

一、에쓰페란토란무엇이냐?

一八八七年七月二十六日에 쏘란드의天才 言語學者 쎄멘호프博士의 뜨겁고 넘치는人類愛의 精神에서 發表된것이 에쓰페란토, 다시말하면 世界共通語입니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打破할수업는言語의城壁속에 잇는文化와思想을 다가치 共有物을 만들어서 眞正한理解를基本잡은 人類相愛의平和를 맛지하자는것입니다 이리하야 人類의最高理解인祝福된 幸福을 永久히 享樂하자는것입니다 붉은피에 목말나하는劍을 내여던지고 永久히 爭鬪와武器를 사라는世上에 에쓰페란토가 神聖한調和를 約束하얏습니다 에쓰語의發音은 流暢하고 文法은 簡明하며 表現은 自由롭고 自在입니다 더욱 배호기가 엄청나게 쉬운것은 露國의톨스토이로 하야곰 그의 二十分에 에쓰語의文法을 解得하얏다는말을 하게하얏고 言語學上의價値와 完美에 對하야는 맑스 뮬레르로 하야곰『에쓰페란토는 二十世紀의 奇蹟이다』하는말을 하게하얏습니다 엇지하얏스나 世界의 識者階級의 만흔讚美와讚辭를 엇게되야 社會의 엇더한 階級을 勿論하고 널히宣傳普及되얏습니다 『에쓰페란토는 平民의라텐語이다』하는말은 얼마나 勞動階級에 普及되것을 알수가잇스며 또는 엇더케 그들의 맘에 깃븜과 즐거움을 주엇는가 짐작할수가 잇슴니다 모든것이 國際化的傾向을 現著하게 가지는 現代의 思潮와함께 온갓問題는 에쓰페란토로 모혀들어서 世界의人類를 새롭은 大高理想의 文化城으로 引導하랴합니다 이리하야 에쓰語의採用이 國際間의政治 外交 商業 또는 交通에는 말할것도 업스려니와 科學 文藝 또는 宗敎에까지 占領하게되야 人類文化史上에 光彩잇는新機運을 지여내랴는 큰使命을 가진것은 二十世紀의驚異라는 에쓰語입니다 果然 奇蹟的言語이며 人類를 爲하야는 唯一인理解器具입니다 한데 에쓰페란토라는 뜻은『希望하는이』입니다 그이름이 생기기는 쎄멘호프博士가 第一番을 發表할때에 에쓰페란토博士라고 하얏기때문입니다 에쓰페란토라는나라가 잇는것도 아님니다 民族이 잇는것도 아님니다 에쓰페란토語라는것은 國家가 잇고 民族이 잇는것이 아닙니다 嚴正한中立語임니다 모든人類의所有物인同時에 모든人類의所有物도 아님니다 한데 에쓰페란토란 말하자면 人類平和를 希望한다는 뜻이겟습니다

二、世界共通語는 잇서야겟느냐?

적어도 現代人으로 世界共通語를 否定할사람은 업겟습니다 그것을否定한다하면 그것은모든交通機關을 否定하는것이나 다름이 업겟습니다 사람은 社交的動物이라고 합니다 또는感情的動物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서리와서리가 서로親近하게 지내랴는것은 事實이며 또한人性이 엇지할수업는것입니다 그러나 서로思想과感情의交換이 잇스면 반드시 서로疾視하라고하는 傾向은 업서질것임니다 現在의 國民과國民 民族과民族이 互相反目하게된 그原因은 排行되는排他主義에 지내지못합니다 眞正한人類의理想과 眞正한文化로 보면 그러한것은 조금도 意味잇는것이 되지못합니다 사람은 다平等입니다 다가치 宇宙의市民으로 人類의文化를 爲하야 힘을 들이며 人類共同의幸福을 마지아니할수 업습니다 近代의 文化가 엄청나게 國際的傾向을가지게된것은 한마듸로 하면 人類共同의理想을 爲하야 祝福받을 幸福을 期待하자는데 지내지 아니하는줄로 압니다

交通機關은 國境을 넘어들어 모든것을短縮식힙니다 만은아모리短縮식히며 또는打破하려고하여도 打破하지못할것은 國民과民族사이에 굿게 섯는 言語라는城壁임니다 암만 이 城壁을 넘어가랴고 하여도 넘어갈수가 업습니다 하야 中國의文化는 中國語라는城壁속에 갓쳐 못켜잇서 조곰도 開放되지못하며 프란스의文化는 佛語라는城壁의 그윽한房속에서 잠을 이루고 말앗습니다 이리하야 아모리 精神文明과 物質文明이 併足의發展이 된다하여도 人類互相의 理解는 조금도 업겟습니다 아모리 반가운맘으로 電話를 밧는다하더라도 서로 使用하는말이 理解되지못하면 電話는 하야서 무엇하겟습닛가? 여긔에 世界共通語가 必然으로 잇서야겟습니다 그러면 그말은 엇더한것을 쓰야겟느냐하는問題가 생길것입니다 世界共通語는 반드시 아모나라의것도 아닌것이라야 하것습니다 엇던나라에게만 利益되는言語이여서는 아니되겟슴니다 絶對中立이며 表現이 自由自在로운言語라야 必要하것습니다 親密한感情이 생길만한것이 必要하겟습니다 엇던힘의 强徵을 밧는듯한 言語가 되여서는 아니되겟습니다 그러고 나라마다 風俗과習慣이 다름과가치 言語의慣用法이 다름니다 여러國民과 民族의任意로 쓸수잇는 一定한固有의 慣用語法이 업는世界共通語가 잇서야겟습니다

一、絶對中立 二、明晰 三、學習容易 이세가지條件을가진言語라야 世界共通語될만한資格이 잇습니다

도리켜 생각하면 過去에世紀동안에世界에强國이라는强國은 被征服者에게 自己의鄕土語를 强徵 또는 暴力的言語로써 唯一한同化政策으로 말앗고 또는 自己의 鄕土語로써 國際共用語를 삼으랴고 하얏습니다 그러나 人類는 覺醒하며 文化는 進步합니다 이러한壓迫的强徵과 屈辱的言語課稅가 人類의 拘束밧지안는 精神을 支配할수가 업슬것은 明若觀火일것임니다 이리하야 얼마나 歷史가 이써문에 생기는 壯烈한 反抗을 우리에게 보여주엇슴닛가! 近代의大勢! 民族主義의 勃興에 딸아생기는 鄕土語尊重問題가 곳곳마다 생기는것임니다 여러나라의國語의學習에 解放되야 文化經濟의必然的要求로 世界共通語를찻지아니할수가 업습니다 絶對中立한言語를 發見하야서 共通될만한 言語를 發見하야 虐待에苦楚를 거듭하여오든 우리의혀(舌)를 救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되겟습니다 우리의혀(舌)는 咀呪밧앗습니다 보십시오 英語를 배홉니다 佛語를 배홉니다 獨語를 배홉니다 時間은 짧고 목숨은 有限합니다 語學은 限업시만흡니다 다바 배호기에 우리의一生을 다바쳐도 조금도完成의길에 나아가지못하고 말게될니다 쓸데업는 여러語學을 배호기에 또는完成도 할수업는것을 爲하야 靑春과努力을 虛費합니다 생각만하여도 무섭은일입니다 누구가 語學 戰爭 傳染病을『世界의三大厄』이라고하엿다합니다 果然 語學은 어려운것입니다 이러케 어려운것을 여러個個畫하야한다면 그以上의不幸이 어데잇겟슴닛가 外國語學習이라는『學習』에 自國語까지 完全히 學習하지못하게됨에 니르러서야 더말할것이 무엇이겟습닛가! 한데 에쓰페란토는 이우에 말한世界共通語될만한資格이 完備된言語입니다 에쓰語가 엇더케 學習하기에 容易하며 各國의모든慣用語에서 絶對中立的이며 明晰性이 잇는自由自在의 表現임은 斯語의文法이 十六條밧게 아니되는것과 또는斯語로된 創作 또는飜譯의 文藝作品을보아도알것입니다 한가지 쓸데업는듯한말갓슴니다만은 여러분의誤解가 잇슬가하야 말슴을하는것은 에쓰페란토는 世界의 모든言語를 統一하자는것이 아닙니다 人類에게는 두가지語學―自國語와 共通語두가지가잇스면 조금도 互相의思想과感情과文化가 永久한城壁속에 잠겨잇지아니하겟다는것입니다 自國語로는 自國民과自國民 또는 自民族과自民族사이에 使用할것이고 世界語로는 異國民對異國民 外民族對外民族하야 쓰자는것입니다

文明의主要素의原動力은 言語입니다 人類가 言語를 所有하면기에 다른動物보다 文化의程度가 놉흔것입니다 하기써문에 言語가 놉하지면 놉하질사록 國民文化의程度는 놉하지는것입니다 그럿습니다 이러한意味에서 世界共通語를 採用함은 現代의進退維谷된 國民文化의前途가 開展됨에딸아 眞正한意味의人類文化가 新機運을 잡게되는 第一要件일것입니다

여러분中에는 世界共通語가 만흔普及을 이루게되면 鄕土語와 國民性이 업서질가하는 疑心을가질듯합니다 만은 그것은 그러치아니합니다 共通語로因하야 人類相互의交通을 圓滿케하며 서로理解하는協力下에 人類文化의普及과改善은 발으게되야 人類의最高理想인 幸福은 增進케될것입니다 에쓰페란토는 人類의맘속에서 울어나온言語임니다

三、에쓰페란토의組織

에쓰語에는 自然語와가치 不規則과慣用語法이라는것이 업습니다 그리고 獨斷的偏見으로된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든지 一般性을 가진普遍的임니다 例로보이면 東洋에서『天』字를 쉬노호면 그發音은 各各다르겟습니다 만은 結局『하늘』이라는뜻에는 中國 朝鮮 日本이 서로 다를것이 업습니다 그러면『天』이라는字에는 발서三國共通性이 잇습니다 에쓰語의單語의採用은 이러한것입니다 그單語에 에쓰語式發音을붓치노흔것뿐입니다 그러고 文法에는 不規則이라는것이 하나도 업습니다 佛語와英語와가치 默音은하나도업서 言語學上의理想인 一字一音의 音입니다 單語하나를 암오면 그것으로 語尾를 맘대로變化식혀 얼마든지 새單字를 만들수가잇스며 또는接頭語와接尾語가잇서 任意대로 새롭은뜻을 가진單語를 만들수가잇습니다 하기때문에 表現에니르러서는 엇더한自然語보다 떨으지못할만큼 말數가 豐富하며 極히細密한感情과 心的微韻까지 表現할수가 잇습니다 이것에는 에쓰語로된 翻譯과創作品을 보면 곳알것입니다

各品詞에는 一定한語尾가잇서 一目瞭然합니다 다른自然語의 文法과 比較하야 얼마나 에쓰語文法이 容易하고도 記憶하기쉬운것은 거의二三週間의 講習으로써 斯語의文法의全部를 알게된다는實際問題로 證明할수가잇습니다

에쓰페란토를 人造語라하야 生命과精神이 업다고하는이가 잇슬듯합니다 그것은 誤解입니다 웨 그런고하면 그는接木한나무를 否定하야 生命이 업고 精神이 업다는것과 갓습니다 임의말씀들입파가치 中國 朝鮮 日本의『天』字에는 生命이잇고 精神이잇습니다하면 그『天』에 에쓰語式發音을 붓치노흐면 生命이업고 精神이 업슬것입닛가 도로혀 더커짐니다 이러한意味에서 에쓰페란토主義에는 에쓰페란토獨特의精神이 잇습니다 에쓰페란토는 아름다운人形이아니고 生命이잇고 精神이잇서 뛰노는 산사람입니다

마즈막으로 에쓰語의學習이 엇더케容易한것은 여러분이 에쓰語獨習書를 한번보면 알것입니다 하고 에쓰語가엇더케 아름다운表現을하는것은 文藝作品의 原文과譯文과를 對照하여보면 곳알것임니다 英國의쉐익스피어의『햄렡』이 에쓰語로 飜譯되엇을때 眞正한紹介를얻엇다하는 英國評論의評論社長스테드의告白이 엇지 거즛이겟슴닛가 쓸데업시 自然語를 完成하기에 十有星霜의時日을 虛費하고도 오히려 實際에는 만흔困을 當하는外國語를 배호라고 말고 一般性的共通語를 배호아 現代의새思想과 새感情에 接하는것이 엇더케愉快하며 깃븐일이겟습닛가

只今에쓰語는 理想의時代에 잇지아니하고 實際의時代에 잇습니다 (에쓰語運動에對하야는 다음에 말하고맙니다)

一九二三、九、一八 (完)

本編著者金億氏著『에쓰페란토獨習』은 今日까지 我邦에서 發行된것中에는 가장完美한것이다 特히文例와語彙의解說와朝鮮文에쓰譯例題等은 獨學者에게 큰便宜를줄것이다 此冊만學了하면讀書나會話에 不自由가업슬것이다(一記者)

最近五十年의中國文學 (四)

胡適

一八四〇年의 阿片戰爭이 잇슨以來 一八六〇年 英佛聯合軍이 天津을 쌔트리고 北京으로 쳐들어가 크게 圓明園을 불질은事件을 지내인 國運의中興을 刺戟한戰爭은 또한크게 西洋사람의힘을 말미암아되얏다 그리하야 中國의 조금事理에 通曉하는者는 겨우서 西洋各國의重要를 承認함에 이르럿다 一八六一年에는 淸朝廷은『總理各國事務衙門』을 設立하고 一八六八年에는『同文館』을 創設하엿다 그後에 또 留學生을 外國에 派遣하는政策도 決定되엿섯스나 當時頑固한社會는 오히려 極力으로 이政策에 反對하얏슴으로『同文館』에 收容할學生을 엇기에 困難하얏다 海外派遣의學生을 엇기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어려웟다 다만 十九世紀末에 傳敎師中에서 李提摩太와가튼 宣敎師가 漸次로 發達하야 中國文士의助力을 어더서 적지아니한書籍을 譯刊하얏다 太平天國中의文士王韜는 이事業의先鋒에 선 重要한人物이다

그러나 當時의飜譯事業은 그範圍가 그리 넓기에 미치지는못하얏다 그第一類는 宗敎의書籍――그가장 重要한 新舊約全書는 몃種의譯本을 내엇다 第二類는 科學과 및應用科學의書籍――當時에『格致』의書라고 이르든그것이다 第三類는 歷史政治의書籍――『泰西新史攬要』『萬國公法』等과가튼것이다 이傾向은 甚히 自然的이엇다 宗敎書籍은 宣敎師의自動的으로 된事業이요『格致』의書類는 當時의中國人이 彼等의砲利船堅을 認識함에 因함이요 歷史法制의書類는 中國人이 西洋의國政을 알기爲하야 必要한것이엇다 其他의書類 即文學哲學方面의書籍에 이르러서는 아즉 當時의사람에게 注意되지못하얏다 當時中國의學者는 自然的傾向이 西洋의 가진兵器는 원래 銳利한것인줄은 알앗지만은 彼等의文藝哲學은 멀리우리의 五千年以來로 가진바에는 밋치지못한다고 본것이다

嚴復과 林紓와 이두사람의 大功績은 實로 이두큰缺陷을 채우고 또한救한데에 잇는것이다 嚴復은 西洋近世의思想을 紹介한第一人者요 林紓는 西洋近世의文學을 紹介한 第一人者이다

嚴復이 赫胥黎(헉슬리)의『天演論』을 譯述한것은 光緒丙申年(一八九六)으로 中日戰爭의後요 戊戌政變의前이된다 彼는 그 自序에 갈오대

……風氣漸通 士知弁陋爲恥 西學之事 問塗日多 然亦有一二巨子 訑然謂彼之所精 不外象數形下之末 彼所務不越功利之間 逞肌臆談 不咨其實 討論國聞 審敵自鏡之道 又斷斷乎不如是也………

이것이 實로 彼의卓識이다 『天演論』이 出版된뒤로(一八九八) 中國人은 漸次 西洋人에게도 銃砲兵船 外에 오히려 精深한哲學思想이 우리가 만히 採用하야 조흘것이 잇는줄을 알앗다 하나 이는 思想上에 關한事項인故로 여기에는 말하지아니한다

우리가 여기서 討論할것은 嚴復의 譯書의 文體이다 『天演論』에는 數條의『例言』이 잇다 그中에 갈오대

『譯事三難 信 達 雅 求其信已大難矣 顧信矣 不達 雖譯猶不譯也 則達尙焉……今是書所言本五十年西人新得之學 又爲作者晩出之書 譯文取明深義 故詞句之間 時有所顚倒附益 不斤斤于字比句次 而意義則不倍本文 題曰達恉 不云筆譯 取便發揮 實非正法……凡此經營 皆以爲達 爲達卽所以爲信也……信達而外 求其爾雅 此不僅期以行遠已耳 實則精理微言 用漢以前字法句法 則爲達易 用近世利俗文字 則求達難 往往抑義就詞 毫釐千里 審擇于斯二者之間 夫固有所不得已也………』

이런것을 보다 當時의實情을 말한것이다 當時는아직白話를 쓰는것이 便利치아니하얏다 …………

田園의밤

盧春城

(○○氏를기다리면서瑞興에서)

밤은잔다
西쪽바른處女의머리털갓흔
순진은 고요한 夜色이
…………
오―보라 쌈이
自然의 입새
어스럼 담아래
잔잔한가는 나무그림자
그우에 쎄도는 구름결가튼
어둠의 輪廻
나무의 숨소래
오―자라 소래업시 자라
…………
오―이곳
金羊毛가치 부드러운
田園의밤! 瑞興의밤!
그리고 사랑하는 그를기다리는
젊은이의맘 그립은밤
―(벳네노―트에서)―

저달속에 파뭇처더이다

劉月洋

눈빗가치 힌
모래밧우헤 밟고 진
지나가며 적은
엇게것고 발자욱을바라볼때
두사람의
가슴속에 흘너나는 追懷의
한편은
말업는 저달속에 파뭇처더이다

황금色비츨 희구름은
新婦의 우승을 가득히 머금은 그밋헤서
한노래에 두독소래가 울어옴을 들을때
가슴속에 흘너나는 追懷의
한편은
말업는 저달속에 파뭇처더이다

무거운 沈默의 秘密은
외롭은 가슴속에 감초인
사랑잃은 靈의
懊惱와 悲哀의 차되찬 눈
물업는 저달속에 파뭇처더이다

一九二三、九月十日
雉岳山밋헤서

黑人種의將來와彼等의社會狀態

在上海 春超散人

…………

레닌氏의現狀 保持政策

…………

社告

分局長 韓禮珫
總務 崔周極
東亞日報定州支局

東亞文壇投稿募集

投稿의種類는短篇小說、一幕脚本、童話、詩、新詩、時調、感想文其他文藝作品
…………
東亞日報社

ClibPDF - www.fastio.com

醫學上으로본朝鮮人의衣食住(四)

세부란스病院醫師 申弼浩

(다)채소에대하야

우리들이 먹는음식은 대부분이 푸성귀요 고기가큰것을 먹는사람은 비교뎍그수효가 얼마되지아니하며 채소나 고기가큰것을 익히여 먹는이보다 생으로먹는이가 도로혀만소이다 대개채소는 음식가온데에 업지못할것이니 고기만먹고 채소를아니먹어도 못사는것이외다 이와가치업지못할것이로대 음식을 만드러먹기를잘못하면 도로혀 해가되나니 고기나채소를 잇다금맛으로 양염을잘하야 한두해를먹으면 그배장간은 매우새맛이나는것가트나 한편으로 해되는것을생각하면 아모도 그대로자실사람이 업슬듯하외다 시골과서울을물론하고 고기를생으로 양염만너어서 먹게하는것 곳육회라하는것은 사람마다 그맛을조아하나 의히지아니한 고기는그살을실상생각하면 눈에는 보이지아니하되 모든버러지의 알이만히잇나니 이버러지알이 사람의배속에드러가서 정말 버러지가되고 마는것이라 그런례를말하면 다알기쉬운촌충 이는엇던자를몰론하고 고기를생으로먹는까닭에 이버러지가생기나니 그런고로 어느디방이든지 고기를쎄우먹는디방 특히육회를만히먹는 디방에는 촌충이든사람이 만소이다 한번 약을먹고 이버러지를쎄버린후에드그다음부터 음식먹는것을 주의하지아니하면 또생기지아니할것이나 누구든지 자긔가 음식에주의치아니한것은 생각지안코서 다만약이 조치안타는말만하며 혹은자긔의 배속이링하여 또발생한다하며 나종에는 자포자긔로 버려지가 얼마가잇든지 몃해를두고 곳치여볼생각도 하지아니하며 부지불식간에 여러해가되면 긘신이 파리하여 몸이 핫속하여지고 음식이 잘내리지아니하며 애를쓰게되며 의사에게가서병을보이든때도 버번에촌충이잇다는말은도모지하지도안코 다만 음식이버리지안는다는말만하나이다 사람의몸에 병을곳치기에 어려운것이 한두가지가아니로대 간이나 허파가튼곳에 버려지드는병가치 치료하기가 어려운것이업나니 비록 촌충이가튼것은 약만먹으면 잘나오나간장에나 폐가튼곳에는 버려지가 한번만 드러가면 다시는그버러지를 잡아내는수업나이다 간장에 버려가드러가는것도 고기를생으로 자시는까닭으로되며 허파에 버려지드는것은 게장이나 개천에잇는 버들기 굴 등을생으로먹는데서 흔히 생기는병이외다 이것이얼는드르면 우수운생각가트나 알고보면 놀넘만한일이만소이다 간에버려지가 살게되면 황달병이나고 허파에버려지가 살게되는병은 토질병이니 특별히 우리나라 진토에이토질병으로 애쓰시는이가 엇지수가만흔지 알수업나이다 이와갓흔까닭을 잘주의만하면 우리는 한세상을 행복으로 살수가잇나이다 지금까지는 고기등속의생으로먹는데 대하야 말삼하엿거니와 오히려 그보다 몃배더주의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 또한가지잇나니 다름아니라 이것은곳어도 우리밥상에 써나지아니하는것이외다 즉채소이니 이것은생으로 먹는것중에 흔히먹는것은 쌈 짓퀴리 여름에먹는 배추김치등속이라 예전부터 채소생식에대하야 우리나라에서도주의하지아니한것은아니외다그런고로 채소를먹으면서 채독이무섭다는말은 사람마다 다하나이다 채소를잘간되치어서 먹어도조치만은 예전부터 버려오든풍속과 습관을인하야 일조일석에 고치기는 어려우나 차々하면는 보아야할것이외다 이채소를 생으로먹는까닭에나는병중에데일만은것이잇는데이것도 역시배속에버려지가생기는것이니우리나라사람은대개는다버려지가잇서도 한가지가아니요 두세가지식은 거의다잇나이다 몃해전에 우리병원에서 조선사람의 대변일천인을 검사하여본즉 그중에 버려지가 한가지도 업는사람이 사십오인이오 그밧게 구백오십오인은 다두세가지식 버려지를가진사람이라 실로 놀념만한일이올시다 이와가치 버려지가 잇는고로 혹엇던사람은 배속에회가잇서서 그놈이 능히사람을말을식힌다 하나니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만듯고 배속에 버래가어를 사람이 말하는것을 드르면 사람중의 배속에 버려가얼마나 만히잇는지는 미루어 알수잇나이다 어룬이나 아해를이나음식먹는데에 관계업시잇다금 배가압흐고 입에군침이돌면서 메식메식한것은 대개는 이회배로되는것이나 이것은또한 여러분이 더욱잘아실듯하니 곳차기도 비교뎍 어렵다할수업는것이로되 그보다 더무서운것은 이지장충이란것이외다 이병은 버려지가 직접창자벽에 붓허살면서 사람의진외을 쌀라먹고또한항상창자에서 조금식 피가나오게함으로 뒤를보면 대변이검은빗이나면서 긘신은 핼속하게되여 부족증들난사람과가치 되나니 이것도역시 채소를생으로먹는데서생기는것이외다우혜말한여러가지 병을잘주의아니하고 다른약만쓰면 아모리하여도 그병이 낫지아니하고 음식에주의하지아니하고 버려지병 잇슬때마다약만먹어도 또한사람이견딜수업는일이니 그런고로큰보담으로행할것은다만음식을생으로먹지아니하는것밧게는업나이다

虛無魂의宣言

吳想殉

봄아—
쉬움업시 숫업시흘러간는봄아
너는무슨뜻이엇서
그와가치흘르는가
異常하게도 나로하야금
애를태운다
뭇모르는地境으로나의魂을
꾀어여간다
나의思想의無礙와感情의自由는
實로네가나아준선물이다
오 그러나 너는
(갓)?
갓금하다
넘어도갓금해서못견듸겟다
×
구름아
하늘에迷하야방황하는
구름아
虛空에淨하야흘러가는
구름아
낫하낫다가는슬어지고
슬어젓다가는낫타나고
슬어지는것이너의美오生命이오
滅하는瞬間이너의享樂이다
어—나도너와가치죽고십다
나는애타는가삼안고얼마나올엇던고
슬어져가는너의뒤를따러
오—너는永遠의放浪者
설움만흔『쌔기본든』
天性의거륵한『데카단』
오—나는얼마나너를안고
몸부림치며울엇더냐
오—그러나 너는
넘어도외롭고애닯다
×
흙아—
말도업시默々히누어잇는
흙아 大地야
너는順하고 쏫々하고
香긔롭고 고요하다
가지々々의物汚을너의안으로
一切를容納하고
一切를먹어바린다
소리도아니내고 말도업시—
오 나의魂은얼마나
너를우러々어머니—하고불럿던가
나의魂은 살지고
생々하게번너의乳房에
매여달니고자—
褒憐케도너의품속에
안키려고애를썻든고
어린애기모양으로—
그러나 흙아大地야
이異端의魂의아달을안어주기에
너는넘어도각갑하고답々하고
感覺이鈍하지아니한가
×
바다야—
잡고마득하고 숫업고
偉大와莊嚴과悠久의象徵인
바다야
너는얼마나
限업는보이지아니하는나라으로
나의魂을손짓하야 꾀이며
醉하게하엿든가
오—그러나
너에게도밋(底)이잇다
밋바다(底地)에支撑되여잇는
너도 뜨되며
나의魂의벗은될수업다
×
별아—
오—美의極—
驚異와莊嚴의秘密—
길흔啓示와神秘의深淵인
별아 너는얼마나깁히
나의魂을움지기(動)며淨化하며
傷해여지려하는나의가슴을
慰勞하엿든가
너는진실로나의戀人엿다
愛와美와眞그것이다
그러나
별아별의무리야
나는실타
恒常變함업는갓흔軌道를도라단이며잇는—
아모리만타하여도限잇는너에게
厭症이낫다
×
사람아—
人間아
너는果是地上의쏫이다별이다
宇宙의光榮—그자랑이오
生命의結晶—그焦點이것다
그리고너는事實偉大하다
하늘에솟치다옴
『바벨』의塔을솟우며 事實차으며잇다
絕對의完成과圓滿과幸福을 단임업시쉬우며
쉬음업시憧憬하고追求하는
人子들아
너이들은
自然界를征服하고神들을暗殺하엿다한다
事實그러햇다
오—그러나
너이들은
峻厳하고異大한破壞와死滅의
『스핑쓰』
너를捕捉할때
너의검은밤도
붉은피도
一切의役事도
무직한자랑도
그다무엇인가—
×
世界의創造者되는神아—
宇宙自證 一切그것인佛아—
全知와全能은
너이들의自慢이다
그러나
너이도『무엇』—이란것이다
적어도『神』이오『佛』이다
그만큼너이도—한
偶像이오獨斷이오專制다
그러나오그러나
나는아모것도실타!
一切의一切가所用이업다
一切가다所用이업다
그럼으로나는斬하는것이다
너이들까지도
虛無의劍가지고—
붉웃아—
오—무섭고거륵한
붉웃아
다래워라
틀도구를도
흙도바다도
별도人間도
神도佛도
모든것을
모조리할터바리라
오—그리고
×
宇宙에充滿하여라넘처라
바람아—
오—暴風—
그붉웃을
불어날니어라!
힘것불어헛치라!
오—偉大한暴風아
世界에充滿한그붉웃을
오 그리고
限업고숫업는
虛空에흩추어헛치라!
×
虛無야—
오—
오虛無야
붉웃을쓰고
바람을죽이라
그리고
虛無야—
너는너自體를
쌔물어죽이라—
피도살도
모양도그림자도업고다만
어름가치참도갓흔—
偉大하고莊嚴하고무섭고廢願한어둠의바다속도갓흔—
말할수도업고알수도업는
그리고나를빗치워게하며매며
부싀게하는너自身을—
쌔물어죽이라—
오々……………
『虛無의屍骸—』
『虛無의屍骸—』
오—나는—
나의두팔과가슴의써가毋서지드록너를얼싸안고죽으련다!
——一九二三,四,二十日 아츰——

追言— 나는宇宙世界人生—그리고그속에包藏된一切의—그過去現在及其將來에亘한 모든現象事件 活動과그運命과歸趨를疑視하고背觸에사못치는—種말할수업는눈물에 잠기어 이말을虛無行의道伴에게드린다 그런데 이글은—十年以來의常習인 世界와人生과自我問題에對한 나의心的苦悶—思想的煩悶와探索과要求이『글』이마쓴에오르고 또그解決에對한決定的意志의欲求가自然하야焦點에람을經驗하던 지난봄어는날의가장神秘롭고도深刻한밤—勿論나에게 잇서々—을새우고난아츰에 그經驗의一端을表現해보고자偶然히붓을손에들어보앗던것이 이一片의글을낫케된動機이다 그러나 極히不完全한表現이되고 말엇다—또한이不完全한纖端을冊櫃밋헤서써으려내서본지를鬻고나者의눈압에버여놋케된 動機는이번日本의未曾有한事變그것이다 거기에우리는 무서운自然의暴力을보앗고—『自然自體』에잇서서는暴力도아모것도아니오 自己의當然한一種의例常事일것이지마는— 적지아니한人間努力의慘敗를보앗다! (以后 人間의努力은反撥的으로더욱熾烈해질것도豫想할수잇지마는) 써려서 一種의深刻한哀痛은 사람의가삼를친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亦是一種의『虛無感』을새로히한번늣기지아니할수업는 그것이다—
——一九二三、九月九日朝——

讀者文壇

短篇小說 선영형님에게

煙坡

선영이란 생애에따란과 눈물만은 일홈을가지신형님! 써난지가오랫나이다 반년이 오나까 일년이 오나까 느즌가을 커녁이엇나이다 버가바다를 건너엉커업시써나든그날 밤이깁도록 작별이야기를하다가 자리에 누엇슬때 들에섯는 포푸라가지에서 무심히지는 입새소리에 잠을이루지못하신형님이 나를 향하야 도라누으시며 하시든말삼을 이즈섯나잇가—『혜경아 자니?』하고 부르지아니하셧나잇가 『안요 웨안주무서요』 『자는게무어냐 저리엽지는소리에 잠이어데오니』하고한숨지으시며 『혜경아 너는귀잡지는소리를엇더케듯니?』 『퍽적막합니다 사람도죽으면저럿켓지……』 『너무여러번말하면 너는듯기실여할터이지만 정말 가지마랏스면조켓다 나는너업스면 참외로워못살겟다』하시든말이 지금것 내귀에 남앗나이다

아—!늦김도만코정도집흔 형님의그맑은마음을쓰리게하고압흐게하든 님지는소리! 그소리가이곳에서도 어린동생의 쇠어진가삼에 모든회포를 자아내나이다 나는방에고적히 누엇다가 달아래 우수수입지는소리에 잠을이루지못하얏나이다아!소리란소리중에 저물어가는가을 소슬한바람에 덧업시지는 입새소리가치 사람의가슴에 외로옴의 눈물을 쌔리는소리는 업나이다 동창으로는 반공에 걸닌우슴띈명월이 창문을두다리며 이외로운동생의 단잠을 멀니々々쫏고갓나이다 나는달에취하야 뜰도나려가월식을밟브며배회하얏나이다 구름업시맑은 막막한창공에는 써줄지는별이 의미잇는늣반쫙이고 무궁의나라를 소리업시흐르는 맑은은하를 격하야잇는 견우성과직녀성은 애달분생각을품고 멀니바라만 보나이다 커!직녀성도면々한견우님을보가는하건만은……아!이몸도 저별이나되얏스면 하얏나이다 달을보고별을보고 하날을우러러볼써모창해지일속(渺滄海之一粟)이란 노래구절이 번개가치머리속으로지내갓나이다커—영원한별과무궁한하날아래 미음이웨잇스며술품이웨잇스며원수가웨잇스며 천악이 웨잇스릿가 이러틋생각한 나는 이몸을그려케도 실여하고 미워하든그사람에대한 사랑이더욱이러낫커 편시드른풀속에서 쌩명엇우는 버려소리가 버창자를 에워내나이다 그러나나는 울지는안나이다 일진금풍이우수수마른 입새를흔들고지내가나이다 아!덧업시지는입!커러텁이업스면록음이 귀할바업고 죽음이업스면 엇지영생의길이허사가아닐가요 형님!사랑이란무엇이오닛가 삶(生)이란 죽음이란 무엇이요닛가 이세상은 돈々하는생명업는 차고도찬세상이나 만일사랑이업던들 삶과죽음의 분간이 엇지잇스릿가 사랑업는 삶은죽엄만갓지못하며 사랑잇는 죽엄은 뜻업는삶보다 나을것이업나이다

일즉 부모의애정을 맛보지못한나는 차고도괴로운 이희설세상에 부평과가치 이리저리흘너다니는 외로운신세를 생각할케마다 나는남과가치 부모의써뜻한사랑은 어이하야 이박명한계집에게서는 영영써나가고 말앗나하며 누구를원망하는지 아지못할때에는 형님의 초최한모양으로 눈압헤나타나며 『그러면잘가거라 할수업다 어려울가서무엇을하든지 소식은 잇처닐고 병이나거나 용커가 써러지거든부며 그별하여라 너를 외롭게보내는 내마음이야비할데업다』하시나이다 아! 이세상에서 이박명한 계집에게 사랑의 눈질을쏫는사람도형님이오 눈물의사랑을받는사람도형님이외다

그런데 그사람은 요사이엇던아름다운 커녀의게 사랑을쏫는다는데 정말이오닛가 아!야속도하고 원통도하외다 이것이신명의작란인니까 조물의 시험이니까……굼이어든쌔이고조물의시험이어든 한루밧비 가련한청춘으로하야곰 우슴의 밝은세월올다시보게하소서……

내가그사람과 부부의 짝을맷몸이 몹슬열병으로 몸져누엇슬던해겨울일이옵나이다 어느날이배 그사람이 밤에과실을사가지고도라와서 배한개를 벳기여주며 머리를집허보더니『또신열이대단하구려』하더이다

『여보……암만해도살지는못할가보오』하며 펼々쓸는두손으로 그사람의언손을 쓰러다가불가치단는버뻡에 대일커 덩녕그사람의입으로나오던말—그것은영々 잇치지안을뿐더러 생각을할때마다 가슴이 치밀고사지가벌々쎌리나이다

『그런방정마즌말은 하지도마오사람이알는다고다죽겟소…그러케 죽어々하나 정말가면나는 엇지살라고……』이러케말하던 그사람의 큰눈에서는 눈물방울이 자리에써러지는 뜬한소리가들렷나이다 아!형님!그사람이 커럿틋 변할줄이야신명안인 이몸이 엇지 꿈에라도생각하얏스릿가 또우리가 금강산으로 신혼려행을갓슬배의 만폭동구에서 바위를울리는 커량한물소리와 옥어진 풍림속에턱모조의 노래를듯다가 자긔의팔로내여개를 결으면서『참조타!우리도중이나되여 괴로운 세상을도망하야 이런데와서 목타이나하오릿가』하던그사람이 엇지그리도 무정하오릿가 『산쉬은고금동(山色古今同)이요『인심은조석변(人心朝夕變)』이라하기는 하엿지만 엇지 그사람의 피로매즌 언약이야변할줄알앗스릿가

형님!나는 엇던째에는 커녁을먹은후에 쥐막에 못이기여문권에서 멀지만케흐는 강변으로뛰여나가 청풍에 소매를날리며케모래판에 배회도하고 구비치는 푸른물결이 갈도라드는바위언덕에 하염업시안커서 숫업는공상나라를 헤매다가 포범에 바람을 가득마저 원포로도라가는일엽주에서 무심히 나려나는 구슬흔 배소리에 청춘의더운피가놀코는하나이다 아— 배소리!여컨만 창생의괴로운 삶을동곡하는단장(斷腸)의노래를듯다가는 그배소리가내인지 내가배소리인지 알수업시 되고마나이다……아—커푸른물결에 이몸을더커 영원의락원으로 도라갈가하야 소리업시흐르는 물결을 바라볼케 나데업는 섬々한우수가물결속에서 나를부르기도 하나이다—『혜경아 바엽한청춘아 이리오너라 너는무슨일로 슬퍼 이쌍쌍업시 가지고 무인지경을 방황하나 너의인간은 적다 비을녹이라면 이리오너라 따뜻한 북음자리는 예비하얏다 너의세상은 요란하나 이곳은란원이다 영원한 평안이다 이리오너라』 혜경아 이리와보니 눈물쩌고려가 자씨로뵈에치며 동십々々가서 그섬々한우수를 힘것쳐안고기리々가고자 하기도 하엿나이다 또그럴때에는 예수씨에 사랑의 초상을드시고 눈압헤낫타나시며

『공중에나는새도 깃드릴곳이잇고 기는 여호도 굴이잇스되 오즉 인자는 머리둘곳이 업다』하나이다

만약내가일즉 예수를 아니밋엇던들 아—이몸은벌서 무정한흔커—푸른물결속에서 모르는어별의 단밥이되엿슬지도 모르나이다

어느덧밤은 그윽히 깁헛나이다 초롱도잠든자고 교々한월색만사방에갓득합니다(五月十日)

—쯧—

엿들은이야기

海州 崔亨烈

나는커녁밥상을물니고나서오날온신문을 두손으로펴들고 벌넝잣바젓다 사설을읽은뒤에 소설두편을보고나서 신문을 떠들고잇든두팔은 괴운이 하나도업시 맥시근하야서 들엇든신문을내려지고 차밧그로 하늘을내다보앗다

해는임의 서편산마루를 넘어간모양이다 물결을치는 강물가치남쪽에서북쪽으로 길게쌀녀잇는 일人대(一帶)의엷은구름은서편으로넘어가는해의마지막빗커주는나마지광선을밧아담홍의고은빗을 빗치고잇는것이 말할수업시화려하다 그러나창해가치검푸른하늘에 찬란한한줄기의놀(霞照)은아모리하야도 우울듯한희망잇는 깁봄은 주지아니한다울밋헤는 외마데장단으로 쉬지안코울어내는 버러지소리가 요란하고부용당(芙蓉堂)담안의수령에서는조악돌을집어더지는듯이 왁자그르를하는참새의지커구는소리가 밝은낫이변하야 어두운밤으로됨을 두려워 덥비는듯이 들닌다 안人방에서는 아해들의 부드럽고 자미스러운 거기에무엇이라말할수업는슬푼곡조의창가소리가써나온다

『내사랑아々々々々
내사랑아 공중에떳네면든
놉은아비혼자두고
영々어데갓느냐』

슬픈곡조의 합창하는소리는 온집안에가득차고남아서 멀니々々점으려오는 하늘로올나간다 『요란스럽다나 가듬놀아라』하고 쪽지는소리는 주인아주머니다 아해들은 울으르하고밧그로 나가는소리가들닌다 방안에서는그첫든이야기가 다시시작되얏다 나는안방에서 건너오는이야기소리를 하나도 쌔지말고들으랴고귀를기우렷다

『그래지금도경찰서에잇나』 남편이적은첩을해가지고 강경섞에가서 딴살님을하고 잇스면서 도모지도라보지아니함으로 늙은친정어머니와함께 고생사리하는 음전어머니의 목소리다

『조금잇가 나와며』 주인아주머니의 대답이다

『그런데사내놈은안잡아갓나?』 이번에는 『국동네』 게나와야쌍밥구경을하는며하고잇다금씩이집에오는 서문밧 입분할머니의 목소리다

『사내놈은 평양으로도망갓담니다』국동어머니의대답이다

『그래경찰서에가서 무어시랴고햇슴구 묵하게도업는나왓진』 음전어머니의말소리다 『경찰서에 [illegible] 네웨아이나 버가다나서 나다니면 하고무엇짓에 기집애 빠다비되면것이낫가 [illegible] 아니라 어케밧에 그남자와반나기로 약조를하얏슴으로 만나려가는길에 별안간배가 압흐기에 엇질수업시 사랑영든 동원으로가서 아해를나핫고보니 깁이부서운생각이나서 그밧집으로도라와서는 그런표부서운마음에그런말도못하야소리하엿다나그리낫가 경찰서에서 못든사람은못고말앗다나』국동어머니가

『잡부년이라구』 음전어머니가

『학교공부한다구 그런중이란햇든거지』유전어머니가

『년놈이 때살쉬이나낫는』이번에는 상전서울로 유학보내고케딴공부잘한다고 불지당하고다니는 스럽는소리잘하는 부모바부컨어머니의 와바부로든듯한목소리다

『사내놈은갯스럽이오 계집애로』

『되다나사내녀석만해두 멋친녀석이지 케식시는 게다데면일석이지』국동어머니가『그러니커런일이잇스니』 부친어머니가근심되는듯이 나직한소리로『우리애도 은근이걱정이 구려서울바다갓흔데서 뒤봐주는에미아비업시 케멋대로 놋다가 언제엇더케될지알겟소 이번에커것들도 서울서 커이들쇠리 이러저러하다가 지금 커모양이지 우리애도 어서으젓한신랑이나어더서 아주시름잇고 밥아마지 밥나(밥이)뇌질안는구먼』『그런게그럿치 다 그럴나구』 음전어머니가『아나 다쓸데업느니 그커아들딸나면 원직 쑥모아주어마지 나이차도록 내버려두니 싸아니되여 그리고 또요새학교공부한다는거시 한아 녯날엔눈 나이찬커녀가 업기야햇나 잇서도 집안에쌕들어안커서 살님사리나배우고 바누질이나하고 잇섯지 지금학교생이라는것들 치장만차르고 동서남북으로 펄너덕대고 도라다니니 녯날이나지금이나 남자들의눈이야 달으나 치는쇠리를 좇칠따라다니리 꼽게차리고 나선것을보면 오죽하고 입부거니하다가도 그런생각을하면 하나도청한것이 업거니하고 구역이나두면 부친에미도 어쩌려다가 쇠집보내게 계집이글을그리마니해 무엇해 살님잘하는게 데일이지 공부이한며』 나는 학교공부의쓸데업슴을 공박한다

『지금 세상에 학교공부를 노상아니해두 아니되겟자만은 십어년공부를 식혀노면 할것이무엇잇서야지 할것이업는지 하지를안는지 모르지만은 모두다보아야 중도속한도아니두면 그리고 데일썩한것은 쇠집갈데업서 야단이지 모도다 넘고처지고해서 커이들이바랄만한 공부한사람들은 다장가간사람들이오 그런처 아니한곳은잇서야 그런것은살기실타하고 그러다가는 커와가치 집안에 시끄런쇠서를투곡 커이들쇠리 커모양을하니 쩍』 부친어머니는 다시 그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래커이들은창차엇지된다구』

『커이두리 산다진』 국동어머니가

『집에잇는 식시는 엇지고』 몸쥔어머니가

『그러코말고다나』

『그런데진』

『그라하다 [illegible]』 [illegible] 비러지소리는 적적가치 사방에서 나는 수선스러운 섬々이 요란하고 고요한틈에 반쾌이는 만중별들의 숨결가튼 산듯々々한가비온바람은 가만가만이 부러와서 내인에구이잇든 나의가삼을 쉬여가군다

新詩

放浪者

金麗水

三千里, 넓은 異域花萬에
피라는듯 無情花는 아니피고
간밤 野花가지은 냉기바람에
한들々 흔들거립니다
가엽다 白頭山을너머
放浪의 길것는 흰옷인은 나그네여—
『나(生)하러 荒涼하여라 하어
차(驚)거라 하느님의밥숨—
차지도안은이 영을비리고 검니다
湖綠의 푸른물이 구비처흘러
우리의 [illegible] 기분 거리—

夢中의세분

金麗水

내가 맛나라 인제진심할
이 [illegible] 이를흘건너
부기운이다리를 어느곳에서오랏가
혜메임에변 언케든지 만나는
낫 니근케분이 잇섯나다 그니
한분은 白髮老人 그다음한분
은 健壯한靑年 마즈막한분은
紅顔美人—

白髮老人이『모래가신 우리하라버지수염갓흔』그의흰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나를보고하는말이
『복잡한人生 罪의아들아— 나를보아라 그리고 나를조츠라 왼손에 이키울— 바른손에 이칼— 不義의씨를 부살라하는 人生이로다』

健壯한靑年은(이야이잘하사는 우리어머니가 이약이하신 넷날장수의 탓던말갓흔) 그의 驍勇한 千里馬우에서 나를보고하는말이
『無力한人生 힘업는者여! 나를보아라 그리고 나를조츠라 왼손에 아름은旗! 바른손에 이칼! 世上과나라를爲하야 싸호는 나를보아라 그리고 나를조츠라 너희는곳세게 살기를願하는人生이로다』

紅顔美人은(우리집 엽집 다홍치마입은 시악씨의얼굴보다 더고흔) 그의얼굴로 나를보며 하는말이
『慾哀의人生 눈물만흔者야 나를보아라 그리고 나를조츠라 가는나의허리—붉은나의입술— 사랑의女王 나를보아라 그리고 나를조츠라 너희는 달게々々살기를願하는 人生이로다』

이리하야 세분은 各々나를 오라 손짓합니다 여보서요 가르침만흔 나의先生님이여— 어느분을 조치야 맛당하오릿가 헤매이기쉬운 나의머리는 어느분을조치야하올지 모르겟나이다
여보서요 先生님! 至今도 커세분은 나를오라고 지려케

地方童謠欄

橫山에서流行하는童謠

赤雨의흘음

우리아버니 서울가서
밋낭주고 벼인벙기
우리어머니 수궁부터
우리옵게 건은벙기
꿈게々々 우슴벙기
음아비니 눈지벙기
우리옵생 눈물벙기
북네바네 감사벙기
진주별며 뵈리기고▲
반만불이 쉬고나니
울만에다 삼불두고▲
올밧게다 씨비불을
산세비를 여고나니
요비병기 봄이직네
자랑하헤 커모먼이
요비병가 주쉬가든
남불쉬라 나라물게▲
주기사야 어린지안어
한산머리 발비올케
한비개리 잡걸처에
발가동々 마조벗고
비탈길당 네가비고
비탈길당 바가비고
울불쉬고 다세주지▲
울치인는 이도렵이▲
날아라 일게되면
그우사불 이아하나
침리비리 쎼리키우
청만가면 구만이지
오리비니 알게되면
생비박이 날리이니
날복케리 이쉬주게

湖南에서流行하는童謠

京城 李在根

귀쉬가는 귀쉬구야
것호로 보면 쎄구로쉬
빈데로 보면 담이로쉬
귀쉬구의 자분 반에
슈人소리가 뭐이로쉬
민동에 희읏스니
취미에는 소리로쉬
米國에 볏읏스니
풍지에는 소리로쉬

少年少女欄

명쥬애기

平北婦女가흔히부르는童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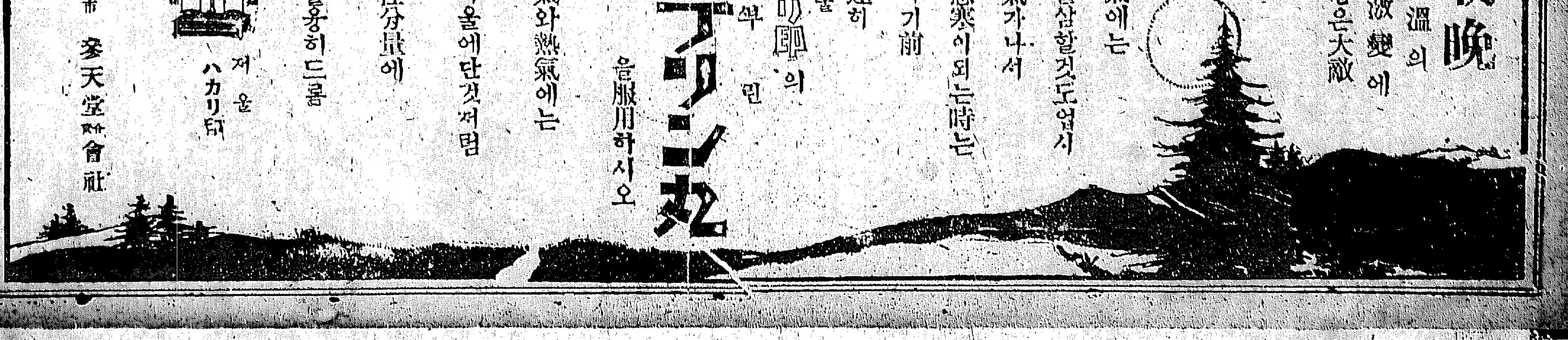
宣川邑 桂順坦

동해바다 한가운데
노생나무 한그루의
동편가지 죽은후에
해오래비 안젓구나
소유지를 서릅쉬더
고이고이 속쉬비여
명쥬에기 꽉조고리
아삭비삭 밟아내여
동편가지 기련못고
를면님면 보니쉬니
친하인쉬 못하겟다
것이업서 못하겟다
몽내방내 도라단겨
입살한말 어더다가
착조고리 천흐달고
쭉살깃을 어더다가
색조고리 깃을달고
지추자더 진자디로
몰을접너 고름달이
명주애기 입혀보니
입쌀쉬라 명주애기
해오래비 덕이로다

謹告

前週日曜號는當局의忌諱되는記事로發賣禁止를當하엿기改題中『에쓰페란토』에對하야,『虛無魂의宣言』『醫學上으로본朝鮮人의衣食住』『地方童謠欄』『少年少女欄』等은 以下記事는本號에再錄함

東亞日報社 日曜號係白



ClibPDF - www.fastio.com